

발 간 등 록 번 호

2018-KIHF-103

내 생애 최고의 선택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수기집



• • • 목 차 • • •

이용자 이용수기

대 상

- 08 **아내의 꿈을 응원합니다**
(우리 꿈,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돌보미 선생님)
대구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박기호

우 수 상

- 14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용산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나지영

- 18 **동행, 소중한 육아의 길을 함께 걷다**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_이하나

- 22 **한 방 해결사, 우리 아이돌보미 선생님**
광주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임해정

장 려 상

- 28 **6년의 소중한 인연**
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조연주

- 33 **'불행'에서 '행복'으로**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정강원(가명)

- 36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시간**
인천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한소연

- 40 **하늘나라 위에 우주**
태안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강인영

- 43 **엄마도 모르는 딸아이의 행복한 이중생활**
경남하동지역자활센터_황은숙

- 47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해준 소중한 인연**
부산 영도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진한영

아이돌보미 활동수기

대 상

- 54 **넌넌넌 사랑해요**
세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최향정

우 수 상

- 60 **손과 입으로 말하는 아이돌보미**
안동시건강가정지원센터_이정화

- 64 **다시 꾸는 꿈**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김영현

- 68 **오늘도 춘자의 전성시대**
배재대학교가족지원센터_한춘자

장 려 상

- 74 **미래를 사는 아이돌보미, "순이"입니다**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_은순이

- 78 **오늘도 내게 와서 벌처럼 반짝였다**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_이상미

- 83 **나는 그 가정의 구급대원 같았다**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_박소연

내 생애 최고의 선택



● ● ● 목 차 ● ● ●

이용자 이용수기

대 상

- 08 **아내의 꿈을 응원합니다**
(우리 꿈,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돌보미 선생님)
대구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박기호

우 수 상

- 14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용산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나지영
- 18 **동행, 소중한 육아의 길을 함께 걷다**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_이하나
- 22 **한 방 해결사, 우리 아이돌보미 선생님**
광주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임해정

장 려 상

- 28 **6년의 소중한 인연**
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조연주
- 33 **'불행'에서 '행복'으로**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정강원(가명)
- 36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시간**
인천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한소연
- 40 **하늘나라 위에 우주**
태안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강인영
- 43 **엄마도 모르는 딸아이의 행복한 이중생활**
경남하동지역자활센터_황은숙
- 47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해준 소중한 인연**
부산 영도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진한영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수기집

내 생애 최고의 선택



대 상

• • • 이용자 이용수기

08 아내의 꿈을 응원합니다
(우리 꿈,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돌보미 선생님)
대구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박기호

아내의 꿈을 응원합니다 (우리 꿈,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돌보미 선생님)

대구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박기호

나는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이다. 나의 고향은 광주이지만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곳은 대구이다. 오래 전부터 일보다는 가정을 더 우선시하는 가장이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일이 많을 땐 몇 주씩 집에 들어오지 못하기도 했다. 타지에서의 육아는 막막하였고, 아내는 점점 예민해져 갔다. 대화는 단절된 지 오래였다. 묵묵히 하루하루 견디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우리나라 보육 정책은 직장생활을 하는 우리 부부의 사각지대를 채워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근무시간 중에도 “혹시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아이가 아프다고 전화가 오면 어찌지?” 하는 마음에 불안하기도 했다.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보육시설 마치는 시간에 맞춰 허겁지겁 뛰어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반복적인 시간 속에서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행복하지 않았고 가족들은 모두 지쳐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내가 꿈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기에 차마 직장을 그만뒀으면 한다는 속마음을 선뜻 이야기할 수 없었다. 부모님과 장모님에게도 손을 내밀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외로운 환경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요즘 미디어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들린다.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찌지?’하는 마음이 컸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 한번 믿고 맡겨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낯선 선생님이 우리 가정에 온다는 것이 좀 어색하였지만, 선생님의 환한 미소는 출근하는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차갑기만 했던 우리 집에 따뜻한 온기가 퍼지는 듯하였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는 바쁜 등하원시간에 아이들에게 “빨리 빨리!”라는 재촉을



하지 않고 아이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봐 줄 수 있게 되었다. “우리아이들이 언제 이만큼 컸지?”라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매일 보는 아이들의 얼굴이 새삼스러웠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자신감 있어졌고, 말수가 늘어났다. 아이들은 이렇게 많은 말을 엄마 아빠에게 하고 싶었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 바쁘고 짜증스러운 우리 모습이 느껴져 눈치 보느라 말을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미안함의 눈물과 행복함의 눈물이 이어졌다. 어쩌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부재로 느끼는 불안보다 우리 스스로 미안함에 느끼는 불안에 아이들을 더 다그치고 삶의 여유가 없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그런 우리부부에게 젊은 부부가 참 열심히 산다며 다독여 주셨고, 늘 웃어주셨다. 동네에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재희 재민이 아버지! 아이들과 함께 다니는 분은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

“아이들을 공주님, 왕자님처럼 모시고 다니셔세요.”

아이들은 돌보미 선생님과 함께 다닐 때면 “우리 선생님이예요!”라며 어깨가 으쓱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선생님은 우리 가족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우리는 이제 아이들에게 “빨리 빨리!”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처음 선생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워했던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가 자기 얘기를 조잘조잘 늘어 놓으며 선생님을 가장 편안해한다. 직장 일에 지쳐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못하고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놓치기 쉬운 우리 부부에게 돌보미 선생님은 아이들이 얼마만큼 예쁘게 자라고 있는지

를 조목조목 짚어주어 아이들과의 기억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애써 주신다. 선생님은 아이들과 어떤 날은 수학공부를 같이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도토리를 주우러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놀이터에 가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우리 부모보다 더 행복해하며 말씀해 주신다. 집안 곳곳에는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그린 그림들이 추억처럼 차곡차곡 붙여져 있다. 너무 많은 그림이 붙어 있어 “하나만 버리면 안될까?”하면 아이들은 어떤 것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틴다. 벽이며, 방문이며, 냉장고에 선생님과 아이들의 추억이 가득하다. 선생님과 함께 주워온 도토리도 테이프로 집안 곳곳에 붙여져 있다.

“그래 우리 한번 열심히 붙여보자.”

또 얼마 전 아이들이 이주일 간격으로 수두를 앓은 적이 있다. 직장생활을 하는 우리 부부는 하루 종일 혼자 남게 된 아이가 걱정되었다. 막막했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유용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질병아동서비스! 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하게 되었는데, 담당선생님이 얼마나 약을 정성껏 발라 주셨는지 흉터 하나 없이 수두를 마치게 되었다. 한 명이 다 낫고 얼마 후 둘째가 또 수두에 걸렸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한 달에 2주 이상의 공백을 어떻게 메웠을지 아찔하기만 하다. ‘우리 사회에서 맛벌이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지만,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맛벌이가족의 아픈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사업이었다. 이 서비스는 늘 멀게만 느껴졌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조절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이라 생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생각하면 아직도 주책 맞게 눈물이 난다. 이 서비스를 접하지 못했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종달새처럼 말이 많고 활발한 아이들로 자라게 해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 어느덧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추억을 이야기할 만큼의 시간이 지났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사업이 더 확충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제 나는 아내의 꿈도 응원해줄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의 아빠가 되었다. 미소 짓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10년 전 아내와 데이트 하던 때가 떠오른다. 아이들이 무수히 그린 그림들의 꿈만큼 이 사업이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내 생애 최고의 선택



우수상

• • • 이용자 이용수기

14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용산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나지영

18 **동행, 소중한 육아의 길을 함께 걷다**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_이하나

22 **한 방 해결사, 우리 아이돌보미 선생님**
광주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임해정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용산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나지영

일이 너무 좋고 내 삶이 너무 즐거워 아이를 낳을 생각이 전혀 없던 나에게 우연히 날아온 작은 아이. 3.1kg, 51cm의 작은 아이는 내 삶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아이를 낳기 전만 해도

“난 애만 낳고 바로 복직해서 일할 거야! 내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어!”

아이를 낳기 전만 해도 이렇게 외치던 내가 이 작은 생명과 사랑에 빠졌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부모님들의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회사에는 출산 휴가만 쓰고 복직하겠다고 선언한 상태, 나는 모든 엄마들이 한 번은 해본다는 복직이나 퇴사냐의 고민에 빠졌고 복직할 경우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고민을 했다. 친정어머니는 신장 이식 환자로 무리해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고, 시어머니는 연로한 시할머니를 모시고 지내는 중인지라 가족 외 사람을 찾아야 했다. 나의 이기심으로 아기를 일면식 없는 남에게 하루 종일 맡겨야 한다는 게 크나큰 죄책감으로 다가왔고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분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까지 들었다.

그러던 중 아이돌봄서비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니 민간시설보다는 믿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뢰가 들었지만 대기가 엄청나다는 소문에 반쯤은 마음을 비운 것도 사실이었다. 사설 업체를 통해 몇몇 분들을 만나봤지만 석연치 않은 찜찜함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나는 정말 깐깐한 엄마였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런저런 조건에 부합하는 분을 만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고민만 반복하여 복직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용산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면접을 보시겠냐는 담당 선생님의 말씀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아줄 같이 느껴졌다. 그리고 만나게 된 돌보미 선생님(양금진)과의 면접부터 결정까지는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복직 날 89일 된 아직 목도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두고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울고 있는 내게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괜찮아요. 내가 잘 돌보고 있을게요. 걱정 말고 다녀와요.”

복직을 선택한 후 죄책감에 시달리던 나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선생님의 응원에 힘입어 나는 회사로 출근했고 선생님은 그렇게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

까다롭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내가 목숨만큼 소중한 아이를 맡기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다. 먹을 것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계획대로 틀림없이 진행해주기를 원하는 내게 선생님은 불편한 내색 한번 없이 오히려 엄마가 참 꼼꼼하다며

칭찬을 해줬다. 매일 선생님과 내

사이에는 편지가 오갔다. 그 날

하루 동안 부탁드리는 사항을

기입한 내 편지 밑에 선생님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가

몇 시에 무엇을 먹었고 몇 시에

잠을 잤고 오늘 하루 어떤 놀이를

하고 무엇을 즐거워했는지 꼼꼼하게

기록해 주셨다. 마치 내가 직접 아이를

돌보지 않았어도 아이가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잘 알 수 있게 그리고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았던 아이의 성장까지 알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선생님과 내 사이를

편지는 노트 한 권, 두 권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

이 노트는 내 소중한 보물 중 하나가 되었고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이 노트를 보여 주면

아이가 얼마나 신기해할지, 얼마나 큰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실감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아이의 반응이 궁금해진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되자 아이는 감기를 달고 살았다. 모든 엄마들이 그렇듯 아픈 아이를 두고 출근하는 엄마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우리에게선 선생님이 계셨다. 선생님께서는 울며 보채는 아이를 안고 늘 자장가를 불러 주며 재워주셨고, 아이의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해 떨어져 걱정만 하고 있는 나에게 상황을 잘 알려 주셨다. 정말 이 무렵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분명 그만뒀을 것이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현관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내 마음을 안심시켜주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해와 같이 밝은 모습으로 선생님과 아이가 함께 나를 반겨주었다. 그건 마치 친정에 가는 느낌과 같았다.

우리 아이는 나를 닮아서인지 까다로운 아이였다.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낮을 많이 가리고 낮선 곳에서는 항상 안으라고 울며 내려놓지를 못하게 했다.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면 일단 대성통곡부터 하는 아이.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일을 해서 아이가 애착형성이 잘못된 건가 등등 걱정하는 내게 선생님께서는 너무도 단순 명확하게 “윤하는 너무 순한 아이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아요.” 라고 답해주셨다. 엄마인 나조차 아이를 믿지 못하고 이런 저런 인터넷 상 정보들을 접하며 불안해했지만 선생님은 이 무렵의 아이는 다 그렇다며 윤하는 의사표현이 명확한 거지 까다로운 아이가 아니라고 단언해 주셨다. 이 말 한마디가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정말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아이의 예민하고 까다로운 행동에도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느긋한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워킹맘에게는 늘 불안 요소가 곳곳에 도사린다. 아이의 변화에 흔들리고 주변의 말에 흔들린다. 조금만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다 내 탓인 것 같아서 내 아이와 나를 믿고 나아간다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내게 그리고 내 아이에게 너무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내기 쉽지 않다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 늘 노래를 불러주시는 선생님 덕에 우리아이는 누구보다 노래를 좋아하고 흥이 넘치는 개구쟁이가 되었다. 선생님과 함께 부른 노래를 나에게도 알려주고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울동을 내 앞에서 보여준다. 아이에게 엄마의 빈자리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집에서 오롯이 아이와 함께 지냈다면 이렇게까지 아이에게 미소로 사랑으로 따스함으로 대해줄 수 없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아이의 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직계가족끼리 식사하는 걸로 돌잔치를 대신하게로 했다. 하지만 선생님만은 꼭 초대하고 싶었다. 이미 나의 아이를, 나를, 우리 가족을 뒤에서 지켜주시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 날 선생님은 자리에 함께해 주셨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딸은

선생님께 달려가 안겼다. 선생님은 손님으로 오셨음에도 역시나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이를 안아 주시고 돌보아 주셨다. 누가 부탁하거나 시켜서가 아닌 정말 할머니가 손녀를 보듯, 이모가 조카를 돌보아 주듯 이런 행동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선생님이 나의 또 하나의 가족임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서툰 초보엄마가 아이를 낳아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이 아이를 통해 돌보미 선생님이라는 또 하나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고, 선생님이 우리가정에 오심으로 딸은 더 큰 세상을 선생님을 통해 배우고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 나는 경력 단절 되는 일 없이 직장에서도 계속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선생님과 만나게 된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17개월이 되어 이제 조금씩 말을 하는 딸은 선생님을 할미라고 부른다. 아직 선생님이란 단어가 아이에게는 어려운 모양이다. 내가 퇴근하고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계속 현관을 가리키며 “할미! 할미!”하고 부른다.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할미는 내일 또 올 거야. 코~ 자고 나면 할미 올 거야.”

소중한 인연. 진부한 표현이지만 선생님은 우리 가정에 소중한 인연이자 귀한 새로운 가족이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우리가정에 있어 온 마을인지도 모르겠다.



동행, 소중한 육아의 길을 함께 걷다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_이하나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짧은 한 마디를 마치고 사무실 책상 위의 업무 수첩부터 핸드폰까지 두서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가방에 넣어 담는다. 아이들 걱정엔 조바심이 난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따라 유독 퇴근길 정체가 현상이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가다가는 어린이집 선생님께 약속한 시간보다 초과하겠는걸. 안되겠다. 미리 전화라도 드려야하겠다.”

오늘도 최인의 심정으로 어린이집 선생님께 전화를 드린다. 매번 사정을 이해해 주시는 선생님들이지만 나만 일하는 엄마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 때문에 다른 가정의 엄마를 퇴근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육아 휴직을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아직 남아 있는 휴직을 반납하고 새해 첫 날을 기점으로 다소 무모하지만 용감하게 복직원을 제출했던 나였다. 3년간의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연속으로 반복하고 복귀한 회사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공백이 길어서 그런지 아직 일도 손에 명확히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다.

나를 복직을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어린이집도 좋은 곳을 묻고 또 물어 거의 반년을 입소대기한 후에 작년 가을부터 두 아이를 등원시켰고, 두 아이 모두 엄마의 퇴근 시간 적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저녁 6시까지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게 하였다. 이제 내 나름의 준비는 끝났고,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겁 없이 복귀를 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동안 나의 노력들이 얼마나 어른의 고집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순간이 오고야 말았다. 퇴근 후 종종거리며 어린이집에

도착했지만 그 날 아이들이 유독 불안해 보였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뭐가 그리 불안한지 엄마의 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 우는 아이들을 겨우 다독거리며 저녁을 챙겨 줬지만 아이 모두 식사를 거부하고 불안감에 울기만 했다.

일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모든 잘못을 엄마 자신에게 돌리게 된다. 육아에 있어서 남녀가 평등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현실의 엄마들은 아직 평등을 체감하기가 힘든 것 같다. 물론 엄마보다 더 고군분투 하는 아빠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하나 둘 생기는 모습을 보면 과도기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평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운운하며, 부부의 평등을 외치던 나 역시 막상 현실의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자 그냥 보통의 엄마가 되어버렸다. 직장 복귀를 서두른 내 스스로를 탓하며, 아이들의 정서에 문제가 생길까봐 밤새 뜯은 눈으로 발만 동동 거렸던 것이다. 마음 같아서는 남들처럼 친정 엄마 찬스, 시어머니 찬스를 쓰고 싶었지만 두 분 다 건강이 안 좋으셔서 치료 중이신 관계로 아이들의 탄생과 동시에 외롭고 고독하게 독박육아를 하게 된 상황이었다.

그 날 이후, 아이들에 대한 고민들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지속되었다. 육아 휴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그 곳으로 숨을 수도 없었고, 아이들에 대한 확실한 대책도 세울 수가 없었다. 그저 막연히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으로 2주 정도 아이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 날도 퇴근길 정체로 인해 마음만 앞서고 있었다. 울면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생각에 답답한 마음이 들어 창문이나 열어볼 겸 조수석 유리창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 버스 한 대가 서 있었다. ‘아이돌봄서비스’ 홍보 문구가 버스 옆면에 광고되고 있었다. 순간 나도 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버스 광고에 쓰여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핸드폰으로 빠르게 검색해 본 후 해당 지역 담당자와 통화를 해 보았다. 생각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나와 같은 처지의 워킹맘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다시 한 번 놀랐던 것 같다. 담당자를 통해 아이돌보미 선생님 대기 신청을 한 지 2주 정도가 지난 어느 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담당자로부터 아이돌보미 면접을 보시겠냐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첫 아이돌보미 선생님 면접. 아이돌보미 선생님께서는 경험이 많으셨지만 우리 아이들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면접 다음날, 센터 담당자께서 면접보신 선생님이로 배정받으실 건지 여쭙보셨지만 다음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배정받겠다며 기다림을 선택하였다.

그렇게 한 달 정도를 기다렸던 것 같다. 다시 육아 휴직을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때쯤, 가문 속의 단비와 같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자 분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아직까지도 이용하실 의사가 있는지 묻는 통화 뒤에 마지막으로 아이돌보미 선생님 면접을 진행하기로 약속을 드렸다. 아무리 좋은 제도이지만 우리 아이들과 맞지 않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앞서던 때였다. 기대 반, 포기 반으로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두 번째 면접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아이돌보미 선생님 업무가 처음이라는 말씀에 솔직히 걱정이 앞섰다. 육아 경험도 없으시다는 선생님의 두 번째 말씀에 우리 아이들과 인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30여분 정도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솔직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이 호감으로 다가왔다. 아이들 역시 선생님에게 다가가 자연스레 말도 하고, 장난감도 건네며 선생님께 호감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나 역시 육아는 처음이지 않은가?’하며 선생님의 마음을 믿고,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갈 거라 믿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담당자로부터 최종 의사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아이들과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오신 후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이 밝아졌다는 사실이다. 늘 친구들이 다 하원한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 둘만 남아서 부모가 오는 7시까지 견뎌내기에는 많이 힘이 들었을 것이다. 아이들은 기다림이라는 힘겨움을 눈물로 표현했던 것 같다.

처음에 낮가림이 심했던 둘째 아이는 이제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가끔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붙임성이 좋아졌다. 지금도 선생님이 가시면 승강기 앞에서 문을 손으로 두드리며 서글프게 운다. 엄마한테서 잘 안 떨어지려 했던 큰 아이는 선생님을 이모라고 부르며 자신의 놀이 활동에 선생님을 참여시켜 활동하려 한다. 선생님께서 동화책도 잘 읽어 주시고, 그림 낱말 카드도 게임 형식으로 가르쳐 주셔서 두 아이 모두 언어적으로 표현력과 발음도 정확해진 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였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엄마가 되기 전에는 이 말이 솔직히 크게 와 닿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이 말만큼 크게 와 닿는 표현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를 내 집을 넘어 온 마을의 도움을 받아서 키워 나간다면 아이의 세상은 얼마나 넓어지는 것일까?

아이를 자신의 성장 단계에 맞게 온전히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인 나에게 있어서도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아이들의 건강하고 밝은 성장과 더불어 엄마인 나도 직업적인 커리어를 유지해 나갈 수 있어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용기를 얻고 있다.

내가 어릴 때, 엄마는 늘 사회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셨다. 하지만 세 딸의 양육을 하다 보니 자신의 인생을 접으시고 자식 뒷바라지에 인생을 다 쏟아버리셨다. 엄마는 늘 입버릇처럼 “제발 우리 딸들은 나처럼 살지 말고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커리어도 멋지게 쌓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라고 말씀하셨다. 세월이 흘러, 나 역시 그 당시의 엄마 나이가 되고 보니,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음을 절실하게 느끼고 배우며 살아가고 있다. 엄마는 국가나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형편에 있으셨기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며 살아오셨지만, 30년이 지난 오늘의 나는 엄마가 못 이루신 꿈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며 이뤄내고 싶다.

오늘 하루도 출근 때부터 등에 땀이 흥건히 날 정도로 고군분투 하며 육아 전쟁을 펼치고 있지만 이제는 마냥 힘들고, 세상을 탓하고 있지는 않는다. 오늘도 일상의 전투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스런 아이들이 있기에 아침부터 신발 끈을 더 단단히 점검해 본다.

“오늘도 힘내자! 우리 가족 모두의 성장을 꿈꾸며…. 화이팅!”

한 방 해결사, 우리 아이돌보미 선생님

광주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임해정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삶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다양함 속에서 모든 삶이 다 나름의 특별함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나의 삶 또한 이러한 특별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제 나의 이 특별한 삶을 당신과 나누고 싶다.

신랑과 나는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소위 말하는 학생 부부가 바로 우리다. 결혼하기 전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미래에 꿈을 이루는 그 행복한 순간을 꿈꾸며 열심히 학업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 같은 사랑을 느끼며 지금의 남편을 만나 따뜻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이 그러하듯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한 후에 아가를 갖기로 했으며 이러한 약속을 뒤로하고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의 꿈은 수학교육학자이다. 사람들이 즐겁게 다가올 수 있는 수학을 강단에서 가르치고 싶다. 그러나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 많은 시간과 재정,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나는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도 박사과정을 병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무리했던 탓인지 건강이 빠른 속도로 나빠졌고 몸 여기저기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다. 특히 자궁에 혹이 발견되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월경을 몇 달간 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은 더욱 불안으로 힘들었다. 더구나 주변에서 “엄마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이를 갖기 쉽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다행히도 꾸준한 치료 후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그때 너무나 기쁘게도 딸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나는 어릴 적 엄마 품에서 자라면서 늘 생각해온 것이 한 가지 있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내게 해주신 것처럼 내가 직접 아이와 살을 맞대고 사랑으로 키우리라!’

하지만 현실은 내가 생각해왔던 이상과 참 많은 차이가 있었다. 임신한 직후부터 나는 우리 딸 마음이를 곧 만날 수 있다는 행복한 감정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취업준비는 아직이거나 학업 또한 다 마치지 못한 우리 부부가 과연 시간상으로나 경제적으로 마음이를 잘 보살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염려가 앞섰다. 다급한 마음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여기저기 알아보았다. 그러던 중 아이돌봄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드디어 2018년 4월 5일, 최마음 탄생♥

3개월의 몸조리 기간을 보내고 나니 다행히도 신랑은 방학 기간을 맞이하였다. 그 때문에 신랑과 나는 마음이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흘러 7월이 지나고 8월에 들어서면서 점점 2학기 개강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이 문제로 신랑과 많은 대화를 나눈 끝에 내린 결론은 어려웠다. 나보다 신랑의 졸업이 좀더 남았으므로 나는 대학원 복학을 몇 년 후로 미루고, 신랑은 그대로 대학원을 열심히 다니기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개강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나는 문득 신랑과의 약속과는 다르게 복학을 하고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복학하는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면서 나는 ‘왜 나만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할까?’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1순위, 그러니까 어느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이쁜 딸 마음이를 보고 있노라면 나는 언제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다. 복학하지 않으면 그런 귀한 딸과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참 좋지만 내 마음은 학업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져만 갔다. 하지만 나와 신랑 모두가 학교에 다닌다면 우리 마음이는 누가 봐준단 말인가. 그러다 문득 예전에 알아보았던 아이돌봄서비스가 생각이 났고 바로 신청 하게 되었다. 그래서 만난 선생님이 지금의 아이돌보미 선생님이다.

우리 부부의 일주일의 생활은 보통 이렇다. 주중 낮엔 대학원생, 저녁에는 마음이의 엄마·아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각각의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학생들처럼 학업에만 집중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주중과 주말의 구분 없이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했다. 물론 양가 부모님께도 부탁드려보았지만, 양가 부모님 모두 일을 하고 계시기에 어쩌다 한 번이라면 모를까 매번 마음이의 양육을 부탁드릴 수는 없었다. 그런데 정말 한 어두운 하늘에 한 줄기 빛처럼 우리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정말 너무나 감사했다. 선생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이번 일주일도 헤쳐나갈 수 없을 정도로 선생님께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다. 단순히 마음이의 돌봄을 넘어서서 선생님은 우리 부부의 제2의 엄마라고 칭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선생님과 함께 하는 마음이를 보고 있으면 ‘우리 딸은 내가 엄마라는 것을 알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선생님의 노랫소리에 웃고, 또 웅얼이하며 행복해한다. 더구나 아이를 돌보시는 와중에도 자녀를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셨는지 때때로 마음이의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신다. 마음이의 사진과 동영상을 볼 때마다 학교와 일터에 있는 우리 부부는 한결 더 안심된다. 더군다나 20대 초보 엄마인 나는 선생님께 육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고 또 배우고 있다. 그래서일까 나는 지금 육아에 전념하는 엄마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잘 헤쳐 나가고 있는 것 같다.

나의 출산 후, 지도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육아를 병행하는 대학원생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학업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은 포기를 하더군요. 정말로 대학원을 마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어. 공부 때문에 가족, 특히 아이에게 소홀히 하게 되더라.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잘 고민하고 복학 했으면 좋겠구나.”

왜 그랬을까. 나는 교수님의 걱정 어린 말씀에 눈물이 펄펄 흘렸다. 터진 눈물은 집에 돌아와서도 멈추지 않았다.

“왜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거지?”

나는 답을 찾지 못한 채 슬펐었다. 하지만 돌보미 선생님이 계심으로 인해 나는 더이상 울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쉽지 않은 상황을 당당히 헤쳐나가고 있다. 선생님께서는 마치 엄마가 딸을 응원하듯이 아침에 오실 때 그리고 돌봄 시간이 끝나고 가실 때마다 나와 신랑을 항상 격려해 주신다.

마음이가 최근 장염에 걸린 적이 있었다. 일주일 넘게 설사를 하고 먹은 것을 모두 토하는 등 상태가 심각했다. 약을 먹고 또 병원에 다녀와도 호전되지 않았다. 마음이는 새벽 3시가 되도록 잠들지 못하고 울며 힘들어했다. 그런데 우리 부부는 이렇게 아파하는 딸을 두고도 학교에 가야 했고, 밤새 간호하다 해가 뜨는 것을 보고 나서야 쪽잠을 자며 학업을 지속했다. 돌보미 선생님은 설사가 심할 때는 보리차를 먹인다든지 이유식은 쌀미음으로만 먹여야 한다는 등 많은 정보를 주셨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와 함께 해주셔서 마음이가 장염을 잘 이겨내도록 도와 주셨다. 마음이를 키우며 스펙타클한 나날들이 많지만,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는 잘 이겨내 가고 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많은 이들이 우리 부부에게 축하와 동시에 우려의 눈길을 보냈고, 임신하고 나서 또한 많은 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졌다. 둘 다 학생인데 무슨 결혼이나, 둘 다 학생인데 무슨 아이냐며 걱정도 걱정을 더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그런 우려 속에 더 단단해져서, 항상 해결책을 찾아 나갔다.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에는 우리 가정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신랑과 우리 마음이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이 모든 갈등과 우려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신 해결사 우리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족 세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선생님의 건강이다!

선생님, 만수무강하셔야 합니다.



내 생애 최고의 선택



장려 상

• • • 이용자 이용수기

- 28 **6년의 소중한 인연**
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조연주
- 33 **'불행'에서 '행복'으로**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정강원(가명)
- 36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시간**
인천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한소연
- 40 **하늘나라 위에 우주**
태안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강인영
- 43 **엄마도 모르는 딸아이의 행복한 이중생활**
경남하동지역자활센터_황은숙
- 47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해준 소중한 인연**
부산 영도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진한영

6년의 소중한 인연

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조연주

“엄마, 여기 선생님 오리가 있어요.”

아이의 말에 의아하여 바라보니 동물 책에 오리 가족이 나와 있다.

“이거는 엄마 오리, 이거는 아빠 오리, 이거는 형아 오리, 이거는 선생님 오리. 선생님이 우리 집에서 살면 좋겠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퇴근하려고 하면 울먹이는 둘째 아이의 말이다. 왜 선생님은 집에 가시냐고, 선생님이 우리 집에서 주무시면 좋겠다고 울먹거리는 우리 둘째.

6년 전, 선생님과 첫 만남이 생각난다. 2012년 10월, 백일도 안 된 첫째 아이를 두고 복직하게 되었다. 그 때의 심정은 워킹맘이라면 모두 같을 것이다. 스스로 할 줄 아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어린 아이를 바라보며 미안함과 걱정으로 복직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친정은 멀고 시부모님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형편에 남편 지인 분께 겨우 두 달간은 아이를 맡길 수 있었지만 그 분도 일을 하시게 되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다. 남편이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알아보자는 말을 하였고 남편 말대로 신청을 한 후 박정에 선생님과 첫 통화를 하게 되었다. 6년 전이지만 선생님과 첫 통화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현재 돌봄 중인 가정에 상의를 해보고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선생님께서는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신의가 깊은 분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다행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2012년 11월부터 우리 집에 오시게 되었다.

첫째 아이 지우는 신생아 때부터 유독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였다.

오죽하면 신생아실에서 손 탔다며 쫓겨났을 정도였을까. 지우가 잠들면 나와 남편은 수도꼭지 물도 틀지 못하고 살금살금 다녀야 했다. 예민한 지우는 선생님을 처음 만난 날 역시 엄청 울어댔다. 지우가 한참을 울었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다시 휴직을 해야 하나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휴직하기 어려운 상황... 돌보미 선생님만 믿고 직장을 나가야만 했다. 돌보미 선생님은 내게 작은 수첩을 준비해달라고 하셨다. 그 수첩에 지우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기록해주시기 위함이었다. 아침에 지우가 간식 먹는 것부터 하루 동안 놀기, 낮잠 시간, 식사량, 대변 상태, 컨디션 등 지우의 하루 일과를 빼곡히 적어주셨다. 퇴근해서 돌봄 수첩을 읽고 있노라면 하루 동안 지우가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선생님의 첫 모습부터 보통 꼼꼼한 분이 아니라는 걸 느꼈지만 선생님의 자필로 쓴 수첩을 읽고 있자니 다시금 감사하며 안도의 마음이 들었다.

프로페셔널 돌보미 박정에 선생님의 특별한 점을 소개하고 싶다.

첫째, 아이 발달 과정에 맞추기

아이의 발달 과정보다 한 발 앞선 경험을 제공하여 아이의 발달을 유도하여 주시는 점이다. 첫 아이를 키우는 초보 엄마는 책으로만 공부하는데, 선생님의 풍부한 경험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과업을 제공해주신 것이다. 공 굴려주기, 한 발로 뛰어보기, 자전거 밀어보기, 풍선 놀이, 점토 만들기 등 선생님의 맞춤형 교육으로 자극이 부족할 수도 있는 가정교육의 공백이 없도록 하여 주셨다.

둘째, 일하는 엄마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워킹맘이라면 누구나 직장에도 아이 생각이 나고 걱정이 될 것인데 선생님께서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었다. 무슨 일이든 항상 의견을 물어봐주셨고 상의하셨다. 지우에게 유축한 모유 먹이는 걸 부탁드렸는데,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고생했겠냐고 하시며 모유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다 먹여주시려고 했다. 모유는 중탕을 해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데 선생님께서는 몇 달을 중탕으로 모유를 데워 먹여주셨다. 엄마가 집에 없지만 엄마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거였다. 이처럼 너무나 세심하신 선생님께서 수첩에 적어주신 내용을 몇 가지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이리 와.”하며 손도 내밀고, 혼자 한참 앉아 있어요. 얼마나 귀여운지!(11/6)

그림책을 봤어요. 책보는 걸 전혀 지루해하지 않아요.^^ 동요 듣고 집 구경하고(11/8)

지우 처음 눈구경했어요.(11/14)

장난감 보여주면 오른손으로 잡으려 와요.(11/23)

무릎에 앉아서 책보고, 이젠 지우가 원하는 거 손 내밀어서 척척 잘 잡네요. 침을 점점 많이 흘려요. 턱이 무르면 안 되니까 계속 침을 닦아줘야 해요(11/29)

아기 피아노 붙잡고 몇 초씩 서 있었음.(12/13)

쓰서에 있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봄.(12/14)

무릎 완전히 세웠어요. 일광욕. 클래식(12/18)

오렌지 3쪽 먹었음. 어제는 딸기 2개 먹었음. 너무너무 잘 먹음.(4/2)

뽕뽕이도 타고 산책(10/14)

지우 오른쪽 코에서만 맑은 콧물 살짝 흘러요.(6/3).....” 《돌봄 수첩 中》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선생님께서 먼저 이렇게 돌봄 수첩을 써주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다. 요즘은 돌봄 센터에서 수첩을 나눠주시는데 아마 이 수첩의 시초는 우리 선생님이시지 않을까 싶다. 엄마가 없어도 돌봄 선생님과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고 일하는 엄마로서의 죄책감도 덜해졌다.

셋째,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주시기

선생님은 아침에 오면 바로 옷을 갈아입으신다. 아이의 연약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부드러운 면 티셔츠로. 그리고 항상 활동성 좋은 바지를 입고 계신다. 아이의 뒤를 따라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뽕뽕 자동차 놀이도 하고, 무서운 괴물이 되어 술래잡기도 하다가 공 던지기 체육 활동도 하신다. 아이와 놀아주다 몸살이 나면 어쩌나 걱정될 때도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

“엄마는 항상 아이의 뒤를 따라가야 해요.”

이 말을 들었어도 초보 엄마는 아이를 놓쳐 뒤로 발라당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한 적도 있다. 아이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먹는 것, 노는 것 등 모든 것에 아이의 안전을 항상 염두에 두시는 선생님 덕분에 나는 마음을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다.

넷째, 돌봄을 넘어서 개인 과외 선생님 역할까지

예민하고 까다로운 첫째에 이어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둘째까지 맡아주시게 되었다. 2014년에 육아 휴직을 하고 둘째 출산 후 원래도 약한 몸이었던 나는 돌발성 난청과 위궤양, 관절 통증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몸이 되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그때 박정애 선생님이 떠올랐다. 워낙에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시기에 미리미리 연락을 드려 겨우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 선생님이 오시고서 병원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점점 컨디션을 되찾아 마침내 올해 복직을 할 수 있었다. 호기심 많고 말도 많은 둘째를 맡기고서.

둘째 아이는 선생님이 가시는 게 싫다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곤 한다. 당황스러우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럴 만도 하다. 주현이는 선생님께 안겨 있고 선생님 무릎에서 책을 읽으며 선생님 팔을 베고 잠이 든다. 선생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어 계셨다. 주변 사람들은 아이를 왜 어린이집에 안보내고 집에서 놀리냐고 얘기한다. 나는 아이의 애착 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물론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고생 많고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 친구들 틈에 끼어서 하루를 단순히 보내는 것과 돌보미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을 오로지 혼자 받으며 지내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심리학자 비덜프의 연구 결과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조차 아동교육 기관의 교사들이 하루에 한 명의 아이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은 8분 정도’ 라고 한다. 우리 아이들을 아는 분들은 말씀하신다. 어쩔 아이들이 이렇게 차분하고 집중력도 높고 마음까지 따뜻하냐고. 나는 이 모든 것이 박정애 선생님 덕분이라고 말하고 싶다. 선생님 자체로 너무나 차분하고 교육적이며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에게 행운이고 은인이시다.

마지막으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

휴직을 하는 동안에도 박정애 선생님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나는 첫째 아이가 커가는 사진을 보내드리고 선생님께서는 크리스마스 때 지우가 입으면 예쁘겠다고 빨강색 점퍼를 사오셨다. 지우가 커가면서 선생님을 항상 기억하라고 선생님 사진을 보여드리며 “지우를 키워주셨던 선생님이셔.”라고 얘기해주었다. 그래서인지 둘째 주현이가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낯가림도 없이 선생님께 안겨버렸고 그때 또다시 느꼈다.

“내가 복직을 하면 아이들을 맡길 분은 이 분뿐이구나. 아이들도 알아보는구나.”

센터에서 모니터링 전화를 주시면 항상 말씀드린다. 선생님께서 너무 훌륭하셔서 감사할 따름이며, 선생님들의 처우와 복지가 더 좋아져서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봐주시면 좋겠다고, 센터에도 감사드린다고 말이다.

● ● ● 이용자 이용수기

주변 아기 엄마들이 힘들어할 때면 나는 주저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권한다. 요즘 저출산과 경단녀(경력이 단절된 여성) 문제로 나라 전체가 심각한 상태이다. 이 문제의 해결책이 돌보미 선생님께 있다고 생각한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세상, 가족처럼 사랑받고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아이들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선생님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다. 출근하여 직장에 도착하니 남편에게 카톡이 와있다.

“돌봄쌤께서 김장김치 가지고 오셨어.”

선생님 사랑해요. 이심전심이라고 사람 마음은 통하나보다. 나부터도 맛있는 걸 보면 선생님 생각이 나고, 텃밭에서 수확을 하면 선생님께 제일 예쁜 채소를 드리니 말이다. 6년간을 이어온 선생님과 인연을 소중히 이어가고 싶다. 오늘도 나는 퇴근하자마자 초인종을 누르고 크게 외칠 것이다.

“선생님, 잘 다녀왔습니다!”



장려상

'불행'에서 '행복'으로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정강원(가명)

7살 딸아이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아빠이다. 한부모로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

2012년 3월 말 결혼했다. 아이 엄마는 이미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만성신부전증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었던 어머니께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드리고, 여행을 떠났다가 일주일 후에 찾아보였더니 어머니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셨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새벽,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가쁜 숨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나시고 말았다.

‘불행’은 그렇게 시작된 것 같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팠던 모양이다. 임신 중인 아내에게 내색은 못했지만 어머니를 잃은 상심에 힘에 겨워했다. 잘해주지 못했다. 알콩달콩 신혼을 즐겨야 할 그 시기에 나는 슬픔의 나락에 빠져 헤어날 수 없었고 그걸 지켜보는 아내 역시 불행해했다. 그리고 그해 9월 딸아이가 태어났다.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빨리 세상에 나왔다.

결혼, 어머니의 사망, 출산, 그리고 이어지는 양육의 고통이 모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났다. 한해 두해 딸아이를 키워가면서도 아내와의 사이에 벽은 점점 두터워졌다. 그리고 딸아이가 5살이 되던 2017년 7월,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행복하게 살자는 약속은 깨어지고, 결국 이혼하기에 이르렀다.

여느 아빠들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이나 주말에만 딸아이를 놀아주던 나는, 혼자 아이를



키워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이혼 후 나에게는 삶이 없었다.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저녁에는 바로 퇴근을 해야 했다. 아이나 내가 아픈 날이면 정상적인 생활자체가 불가능했다. 아직은 엄마 품이 절실한 아이에게는 엄마의 부재를 설명하기도 납득시키기도 어려웠다.

“엄마 보고 싶어!”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우는 날이면, 나 역시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어 눈물이 그냥 흘러 내렸다. 아이 앞에서든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안 운 척하려고 괜히 성을 내기도 했다. 회사일이 잘 돌아갈 리 만무했다. 집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마저 나빠지게 되었다.

그러다 회사 일로 2018년 1월에 강원도 원주시로 주소를 옮길 상황이 되었다. 낯선 곳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게 겁이 났다.

미리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여기저기 물어도 봤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소득 기준 등에 부합하면 정부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지원은커녕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만 있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빌었다.

이사 오기 전인 2017년 12월, ‘원주 아이돌봄서비스 센터’에 무작정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아직 주소도 옮기지 않은 내게 너무도 잘 설명해 주었다. 내게는 정말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서비스 신청자가 많아 신청해도 좀 기다릴 수도 있고, 선생님이 매일매일 바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미리 신청해지 못함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속상한 마음에 “한부모 아빠라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냥 하소연 한 것이었다.

그런데 나와 같은 한부모는 우선적으로 신청을 접수해 선생님을 배정해줄 수 있다고 했다. 그야말로 ‘한 줄기 빛’같은 말이었다. 2018년 1월, 주말에 이사를 하고 월요일에 처음 배정받은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만났다. 내가 한부모 아빠고 육아를 잘 몰라 엉망진창인 상태를 그대로 말씀드렸다.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과 바라는 점 등을 다 들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는 내게도 ‘행복’이 찾아왔다.

딸아이는 ‘할머니’ 같은 돌보미 선생님을 잘 따랐다. 선생님 역시 친손녀같이 돌봐주셨다.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았던 내 삶에도 웃음과 희망이 찾아왔다. 회사일이 잘 돌아가게 된 건 물론이다.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덧 아이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받은 지도 10개월이 지났다. 12살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딸아이는 다른 데로 이사 가기도 싫고 지금 선생님과 계속 이렇게 같이 지내고 싶다고 한다. 우리 딸 다인이에게 돌보미 선생님은 단순히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엄마’이자 돌아가신 ‘할머니’이다. 엄마 없이 커서 나이에 비해 의젓하고 속이 깊지만, 아직은 ‘똥꼬’도 혼자 못 닦는 아이이다. 다인과 내게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말이지 크나큰 행운이다.

좋은 제도 덕에 나 같은 ‘행복’을 잃은 한부모 아빠가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출산과 육아 그리고 삶에 지친 부모와 아이들이 나처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많이 늘려주기 바란다. 항상 다인을 손녀처럼 아껴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시간

인천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한소연

"결과 나왔습니다. 임신입니다. 축하합니다!"

큰 아들이 그토록 원하던 동생이자 우리의 둘째였다. 하지만 그 기쁨은 7주차 되는 날 충격으로 탈바꿈했다. 아기집이 하나 더 보인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 맙소사, 쌍둥이라니!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나에게 귀한 생명이 둘이나 온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테고 우리 가족에게는 크나큰 축복일 것이었다. 그렇게 열떨결에 다둥이맘 대열에 합류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음의 준비를 시작했다.

"쌍둥이라니 모든 게 두 배로 필요하겠군... 옷, 신발, 장난감 그리고 아이를 봐줄 사람도!"

안타깝게도 친정이나 시댁에는 세 아들의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사정이 되지 못하였고, 남편도 사업상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아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축복받은 아이 둘을 뱃속에 품고도 임신 기간 내내 걱정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사랑 많은 그 누군가가 필요했다.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신청을 해냈지만 워낙 대기자가 많아 내 차례가 언제 돌아올지 몰랐다. 출산 후 하루가 멀다 하고 센터에 전화를 해서 언제 차례가 되냐고 묻곤 했다. 의미 없는 행동이었지만 내겐 그만큼 간절했다. 그러던 어느 날 걸려온 전화한통을 받고 누군가 앞에 있길라다 하듯이 연신 고개를 꾸벅이며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다. 나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쌍둥이를 일곱 쌍이나 본 7년 경력의 선생님이 배정된다고 했다. 야호!

바쁜 남편의 공백으로 출산 후 백일간 아들 셋 독박 육아에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산후 우울증



으로 힘들어하던 나에게 아이돌보미 선생님(김은선)은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와 같았다. 한줄기 희망의 빛. 출산 직후 교통사고와 막내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등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금방이라도 깨어질 듯한 유리장 같은 정신을 부여잡고 살던 나에게 선생님은 아이돌보미 이상의 존재였다. 선생님이 출근하기가 무섭게 밤새 아가들이 교대로 울어대서 잠 못 자서 힘들었다며 푸념을 늘어놓거나 동생에게 질투하는 큰 아이의 떼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 상담을 하기도 하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둘 다 아이 셋을 가진 엄마라는 공통점은 우리를 더 친밀하게 해주었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을 응원해주며 나는 그렇게 치유되고 있었다. 나에게 있어서 선생님은 단순한 돌보미 선생님이 아닌 때로는 친구, 때로는 언니가 되어 가장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한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간 열이 오르내리던 다섯 살 큰 아이가 밤 1시가 넘는 시간에 열이 41도까지 치솟았다. 불덩이 같은 몸은 약을 먹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이런 날 하필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다. 쌍둥이 동생 둘을 다 안고 응급실을 갈 수도 없는 터. 눈앞이 캄캄했고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 당장 떠오르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었다. 죄송한 마음을 무릅쓰고 그 밤에 선생님께 전화를 했다.

그렇게 산후우울증도 어느 정도 견뎌내고 있었고 정신을 차리니 어느덧 아이들은 9개월이 되어 있었다. 이제 곧 복직도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항공사 승무원인 나는 아이들을 낳기 전에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여행하고 사진 찍으며 자유로운 삶을 살다가 오랜 시간 육아로 집밖 출입도 쉽지 않은 생활을 한지 벌써 몇 해가 흘렀다. 복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시작하면 아이들 셋을 두고 며칠씩 집을 비워야 하기에 복직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했다. 돌아갈 직장이 없는 가정주부가 된 나를 발견했다. 산후우울증과는 또 다른 자괴감이 밀려왔다.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그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13년 동안 하던 이 일 이외에는 나는 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런 나에게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이다. 아이들은 잘 봐줄 테니 걱정 말고 뭐든 공부해보라며 용기를 북돋아주셨다. 그 다독임에 용기를 얻어서 나도 내 삶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생겨났다. 마침 친구가 공부한다는 공인중개사 시험 1차 준비를 위해 책을 부랴부랴 구매하고 두 달 남짓 남은 시험공부를 시작했다. 자는 시간 줄이고 끼니도 건너뛰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본 것이 얼마만인지 모른다. 가장 마음이 쓰였던 것은 당연히 아가들이었다. 엄마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에 내가 이런 아가들을 두고 꼭 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가 잠시 고민도 했지만 엄마로서의 나를 벗어나 내 자신을 위한 삶도 찾고 싶었다. 선생님은 엄마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가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셨고 그 와중에 돌잔치도 마쳤고 2주 뒤 시험도 무사히 치렀다. 다들 아이 셋 키우며 두 달 남짓의 시간동안 1차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했지만 행운이 따랐는지 가채점 결과 합격 점수를 받았다. 가채점 결과를 들은 선생님은 나보다 더 기뻐하셨다. 첫째 출산 후 오랜 시간 철장 없는 감옥 같은 집 안에 갇혀 나를 잃어버리고 자신감마저 잃어버렸던 시간들, 그리고 그동안 잠도 포기하고 공부하며 달려왔던 시간들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이 작은 성취로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 도전 뒤에는 항상 나를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선생님이 계셨다.

선생님과 함께한 9개월 동안 내 삶은 많이 변화되었다. 우울한 산모에서 자신감 넘치는 아들 셋 파워맘으로 말이다! 새삼 나는 참 인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싶다.

내후년 봄, 아가들이 어린이집에 가면 그때 선생님과 헤어져야 할 텐데 벌써 그 미래가 아쉽고 허전하다.

다들 나에게 묻는다. 아들 셋 키우기 힘들지 않느냐고.

나는 답한다. 마음이 즐거워서 몸도 힘들지 않다고.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해준 선생님께 매일 헤어지는 현관에서 외친다.

“선생님, 오늘도 정말 감사했어요!”



하늘나라 위에 우주

태안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강인영

사랑스런 아기 우주를 만나고 알게 된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우리가족이 느낀 감사와 변화를 글로 표현하자니 조금 떨리고 막막하기까지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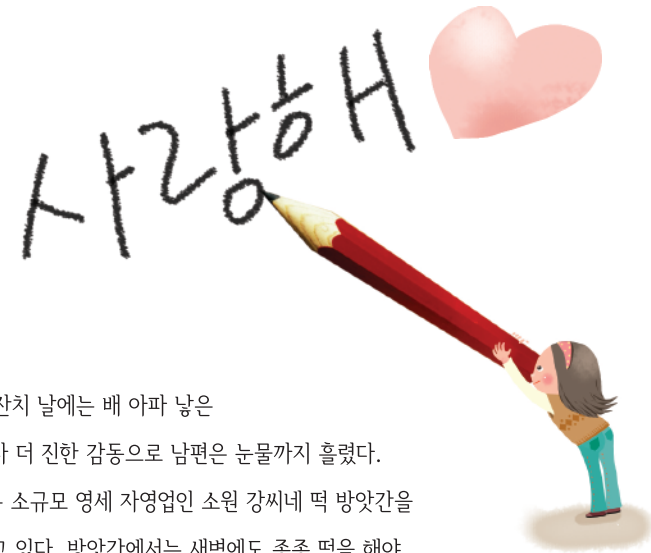
우리 부부는 44세 동갑내기로 벌써 살아온 세월의 반을 함께 하고 있다. 우리 사이에는 열여덟살이 된 큰딸 하늘이와 열네살의 작은딸 나라가 있다. 우리는 아주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늘 에피소드가 끊이지 않는 단란한 가족이다.

현재는 너무나도 작고 작은 월세가게를 통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만은 푸짐하고 넉넉한 작은 우주(우리가족은 소규모 우주와 같아요) 속을 매일매일 헤쳐 나가고 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부부는 가끔씩 뉴스와 각종 매체를 통해 듣게 되는 이웃들의 삶 속에서 베이비박스를 통해 버려지는 많은 아가들, 그리고 씻을 수 없는 학대와 방치로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의 뉴스를 볼 때마다 같은 사람으로서 혹은 부모로서 눈물로 밤을 새우기도 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에 셋째아이의 입양은 꿈도 꾸지 못했고 언젠가 형편이 나아지면 꼭 입양을 하겠다고 생각만 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고, 더 나이가 들면 아이를 기르기도 힘들 것 같아 마음이 부자인 것을 자산 삼아 더 늦기 전에 셋째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여러 가지 서류와 심사를 거쳐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예쁜 우리 아들 우주를 만났다. 처음 우주를 만난 날은 정말 꿈만 같았고 어떠한 말로도 그날의 행복과 감격을 표현할 길이 없다.



또 돌잔치 날에는 배 아파 남은

자식보다 더 진한 감동으로 남편은 눈물까지 흘렸다.

우리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인 소원 강씨네 떡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다. 방앗간에서는 새벽에도 종종 떡을 해야

하고 더구나 주말인 토요일에는 고추를 빻거나 떡을 찌야만

하는 날이 많아서 우주를 등에 업고 일을 해야만 했는데,

힘에 겨울 때가 많았다. 고춧가루에 아기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도 등 뒤에서 웃고만 있어

안쓰러울 때가 많았다. 방앗간 생활에 기관지가 약해진 우주는 병원에 다녀야 했다. 아기도 나도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우주와의 법적서류가 마무리된 다음부터

태안군센터를 통해 오시는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우리를 찾아온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은 거의 구세주 같았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한파가 심해서 새벽에 떡을 찌러 아기를 엮고 나가면 우주 얼굴은 빨갛게 얼어

버릴 것만 같았다. 그런 강추위 속에서도 남편과 난 우주를 생각하며 더 열심히 힘을 내어 일을 할

수가 있었다. 한참 일을 하다가 돌보미 선생님이 오시면 아이를 받아가 주셨는데, 그러면 한결

가볍게 일을 할 수 있었다. 아이도 방 안에서 돌보미 선생님이 불러주는 노래와 기도로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난 늘 감사했고 참 다행이다 싶었다.

날씨 좋은 날은 앞마당 꽃밭에서 사진도 찍어 보내주시고 우주에게는 마치 친할머니와 같고 우리

에겐 가족 같은 선생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아마 아이돌봄서비스가 아니었다면 힘에 부치는

큰 양육비 부담에 개인 돌봄은 쓰지도 못했을 거고 일이 고되고 힘들 때마다 어쩌면 우주를 입양한

것을 후회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아이돌봄서비스와 돌보미 선생님 덕분에 육아가 쉬워졌고 몸도 가벼워졌다.

나이 많은 엄마라서 그리고 육체노동이 대부분인 직업 때문에 팔다리가 쭈시고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펄펄 날아갈 것 같은 건 아마도 돌보미 선생님의 보살핌으로 우주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 때문일 것이다.

즐겁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항상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 또한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주는 아이돌봄서비스와 돌보미 선생님처럼 많은 혜택을 주시는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복지서비스가 너무나 훌륭하고 자랑스럽다.



장려상

엄마도 모르는 딸아이의 행복한 이중생활

경남하동지역자활센터_황은숙

5년 만에 너무나 기다려 생긴 둘째 딸아이를 낳고 3개월 뒤에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생겼다.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생긴 일자리지만 일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하지만 애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다.

“애들 키우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텐데...”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흔들렸다. 한참 손이 가는 3개월 된 딸아이와 초등학교 입학의 눈앞에 둔 아들을 두고 직장생활의 시작을 마음먹기엔 망설여지는 시간이었다.

“나보다 아이들을 더 잘 돌봐주실 분을 찾을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원하던 곳에서 일을 시작하는 게 미래를 위해 나을 것이야.”

처음에는 애들이 너무 어리다며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던 남편도 “그래, 애들은 자랄 거야. 그동안 우리아이를 믿고 맡길 곳을 알아보자”라고 이야기했다.

여러 방도를 생각하니 답이 보이기 시작했다. 기간제로 근무하다 아이를 출산하고 퇴직하기 전 직장에서의 출산 휴가 때의 인연이 떠올랐다. 바쁜 남편을 대신해 몸조리가 필요한 나의 육아를 위해 처음 아이돌보미를 신청한 적이 있었다. 그때 우리집을 방문했던 선생님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래, 바로 이분이야. 아니 딱 이분뿐이야.”

남편과 나는 똑같이 그 선생님을 꼽았다.

산모가 혼자서 힘들다며 딸아이의 목욕도 함께 시켜주고, 큰아이 유치원 셔틀버스도 태워주셨다.

• • • 이용자 이용수기



무엇보다도 그 선생님의 눈이 “나는 아이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천직 같았던 분. 우리 부부에게 아이돌보미가 직업이 아니라 소명인 듯 느끼게 만드셨던 분이였다.

나의 갑작스런 사정들을 들이시고는 딸아이를 종일제로 돌봐주시기 시작하셨다. 그때부터 우리 유이의 행복한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다. 엄마인 나도 모르는 딸아이의 생활들이 말이다.

아침에 큰아이 등원 준비에, 출근 시간 맞춰 나오기도 늘 부족한 시간이다. 아이가 돌보미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믿고 둘이 함께하는 일상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그렇게 유이가 커갈수록 선생님은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 많아졌다.

“유이엄마가 좋다면 지역 건강가정센터에서 무료로 하는 체육수업을 다녀도 될까요? 유이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수업을 세 달씩이나 오가는 것이 힘들지 않으실까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유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을 보니 감동이 밀려왔다. 사실 첫째 아이 때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하는 베이비마시지며 체육놀이며 혼신의 힘을 다해 접할 기회를 제공했지만 유이에겐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해주시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체육수업을 3번쯤 나갔을 때 체육수업을 하는 센터의 선생님께서 보내온 사진과 문자를 보며 눈물이 핑돌았다.

“어머니, 유이의 체육활동 사진입니다. 엄마랑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지만 선생님과 함께하는 유이가 제일 신나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진 속 유이는 돌보미 선생님과 함께 너무나 신나보였다. ‘다행이야. 너무 좋은 분을 만나서...’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이엄마가 좋다면 지역에서 하는 마스크랑 목도리 만들기에 다녀와도 될까?”

“그렇게 하시지요.”

며칠 뒤 함께 가서 만들었다며 병아리 마스크와 손수건을 주셨다. 유이가 자라는 만큼 나도 고마운 마음이 계속 자라고 있는 거 같았다.

“엄마, 이거 이모가 유이 이쁘다이쁘다해서 만들어주셨어. 유이 이모가 제일 좋아”

“유이엄마가 좋다면 장난감도 있고, 친구들도 사귄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에 한 시간씩 다녀 볼까 하는데...”

다른 친구도 생기고 사회성도 좋아질 거 같아 이번에도 마다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다 유이가 잘 지나나 엄마표 암행감찰을 갔었는데 딸아이가 도착 전이었다. ‘이런 공간에서 딸아이가 놀고 있구나.’ 그곳에서 엄마도 모르는 이모와 함께하는 유이의 일상들을 듣게 되었다.

“유이는 우리 공동육아의 사랑스런 우수고객님이에요.”

오랜 시간 방문해서 처음엔 할머니라 생각했었다. 유이를 포함해 다른 아이까지 얼마나 다정하고 자상하게 대하시던지 “저도 같은 엄마지만 그렇게는 못하죠.”라고 이야기한다. 친구들이랑 놀 때도 다른 아이들을 배려할 수 있게 잘 가르쳐주셔서, 유이는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며 나중에 어린이집을 보내도 걱정은 접어두라 한다.

그 선생님의 말처럼 4살 봄이 되던 해 유이도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다. 어린이집 선생님께서도 유이가 적극적이며, 뭐든 혼자서 잘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 이쁘다고 이야기했다. 그것은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유이가 함께 했던 많은 경험과 소중한 체험학습들로 어린이집 생활에서 적응도 잘 해나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돌보미 선생님께서 유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얼마 전부터 일부러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놀아

어린이집이 낯설지 않도록 했다. (등원하고 적응기엔 어린이집에서 점심 먹을 때까지 같이 있어준 고마운 일은 비밀로 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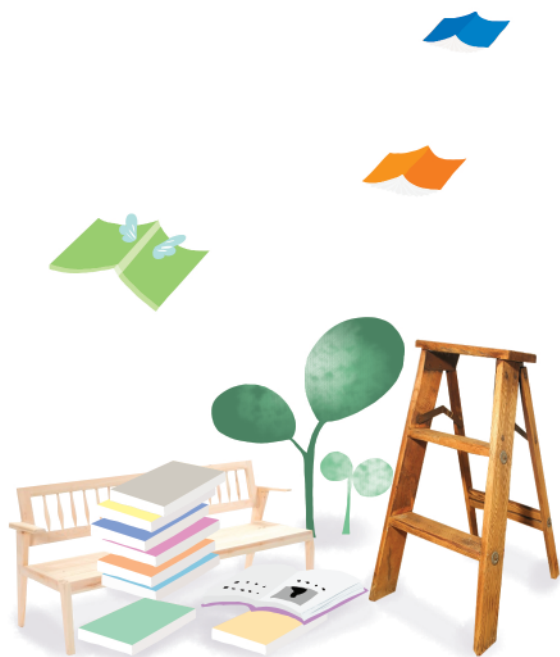
또한 나도 새롭게 시작한 직장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좀더 안정된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그때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오지 않았을 기회라 육아의 부담을 덜고 일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아이돌봄지원사업에도 고마운 마음이 든다.

봄이면 벚꽃구경을 하고 “엄마, 유이 따르릉 타고 꽃 보고 왔어요.”

여름이면 보로로공원에서 “엄마, 유이 보로로랑 패티랑 크롱이 보고 왔어요. 안아도 보고요.”

가을이면 송편을 빚고 “엄마, 이모랑 승원이랑 떡 만들고 있어요. 엄마도 먹어봐요.”

겨울이면 따뜻한 그 어딘가에서 돌보미 선생님과 함께했던 유이의 행복한 이중생활을 엄마인 나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속에서 배우며 자라났을 딸아이가 행복했으리라 믿는다.



장려상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해준 소중한 인연

부산 영도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진한영

5년 전, 아이 아빠와 헤어지게 되었다. 갓 100일이 지난 아이와 함께 지낼 곳이 없어, 모자원 시설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너무 어린아이이기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겁이 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아이만 보며 시설에서 지내게 되었다.

일을 하지 않고 아이하고만 시간을 지내다보니 아이에게 필요한 아기용품들을 살 수 없었고, 생활은 힘들었다. 더군다나 뉴스에서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건을 보고 난 후 일을 하려고 했던 마음조차도 사라지고 어린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더 겁이 났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생활고에 시달렸고 ‘그냥 죽자.’는 생각이 커졌다. 아이를 안고 바다로 무작정 걸어가며 말했다.

“아가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데리고 살아갈 자신이 없어... 다음 생에는 꼭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행복하게 살아.”

그 때 내 품에 안겨 잠들어 있던 아이가 눈을 뜨더니 생긋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미쳤지.’ 라는 생각만 들었고 황급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아이와 더 열심히 살아보려 구직활동을 하였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겼다.

“오로지 돈만 많이 벌자.”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지도 않고 죽어라 일만 했다. 하지만 그건 나의 잘못된 생각이었다. 아이는 불리불안에 난폭해지까지 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다.

● ● ● 이용자 이용수기



아이는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침부터 뺀고 때리는 행동을 보였다.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첫 돌보미 선생님은 더 이상 아이를 볼 수 없다고 통보하고 돌아섰다. 아이의 거친 행동 때문에 돌보미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게 되었다.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살아가는데 무기력해지면서 우울증이 생겼고, 약을 먹게 되면서 아이와 함께 심리상담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이는 분리불안과 난폭성이 더 심해져가고, 엄마인 나도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다.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돌보미 선생님을 다시 신청하게 되었다. 새로 오신 돌보미 선생님은 이전 돌보미 선생님과 조금 달랐다. 아이의 상태를 듣고 아이를 보러 집으로 직접 달려 와 주신 것이었다. 그리고 아이가 천천히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셨다. 2015년 10월 2일, 그때부터 나와 돌보미 선생님(이명숙)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선생님께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놀이 활동과 돌봄을 해주셨고, 덕분에 아이의 분리불안도 호전되었으며 난폭했던 모습도 사라지게 되었다. 생계를 이어나가기에 바빴던 나는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고, 항상 피곤하다는 핑계로 집에만 있기 바빴다. 그런 나를 대신하여 돌보미 선생님은 우리 채훈이를 위해 공부부터 시작하여 계절이 바뀌면 계절에 맞게 지역 행사도 데려가 주시고, 나와는 하지 못했던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 주셨다.

선생님은 몸이 아프셔도 채훈이가 안아달라고 하면 언제 아팠냐는 듯 안아주셨다. 이제는 선생님 가족 분들까지 채훈이를 막내아들로 생각해주셔서 선생님 자녀분들까지도 시간 날 때마다 톡톡이 오셔서 아이랑 같이 놀아주기도 한다.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다.

그래서 그런지 채훈이도 선생님 가족 분들을 친형, 친누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엄마, 오늘 형아랑 누나랑 같이 놀았어.”

든든한 지원자를 둔 아이는 자랑스럽게 말한다.

내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자연스럽게 아이도 사람들과의 교류가 별로 없었다. 항상 나랑만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선생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만나다보니 아이가 활발해지고 남에게 먼저 다가가서 애기도 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다.

특히나 선생님이 오신 날에는 “엄마, 있잖아~ 어찌고저찌고…….” 이야기도 해주고, 밤에 자다가 “엄마,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어...”라며 울면서 말하는데, 엄마인 내가 섭섭하고 질투가 날 만큼 선생님 바보가 되어 있다.

예민한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께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짜증 한번 내지 않고 그저 친절하게 이야기 해주시는 선생님이 천사가 아닐까 종종 생각한다. 워킹맘인 내게 아이 걱정하지 말라고 수시로 사진을 찍어 보내주기도 하고,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아이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 가져주곤 한다. 또한 아이 엄마인 나도 친정엄마처럼 챙겨주고 보살펴 주신다. 덕분에 나는 친정엄마한테 아이를 맡겨 놓은 것처럼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명숙 선생님이 아이를 봐 주신 지난 3년 동안, 신용불량자였던 나는 열심히 일을 하여 빚을 다 갚아 신용불량자에서 탈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울증도 완쾌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아빠 없이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다. 그런데 나와 같은 한부모 그리고 워킹맘에게 이런 아이돌봄서비스가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된다.

많지 않은 월급으로 아이와 단 둘이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지만 아이돌봄서비스가 없었다면 이명숙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고, 이명숙 선생님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방황하며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진짜 나 혼자 아니라 영도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친정엄마 같은 이명숙 선생님이 계셔서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되었다.

“이 감사함을 잊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수기집

내 생애 최고의 선택



● ● ● 목 차 ● ● ●

아이돌봄미 활동수기

대 상

- 54 **넌넌넌니 사랑해요**
세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최향정

우 수 상

- 60 **손과 입으로 말하는 아이돌봄미**
안동시건강가정지원센터_이정화
- 64 **다시 꾸는 꿈**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김영현
- 68 **오늘도 춘자의 전성시대**
배재대학교가족지원센터_한춘자

장 려 상

- 74 **미래를 사는 아이돌봄미, '순이'입니다**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_은순이
- 78 **오늘도 내게 와서 별처럼 반짝였다**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_이상미
- 83 **나는 그 가정의 구급대원 같았다**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_박소연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수기집

내 생애 최고의 선택



대 상

• • ● 아이돌보미 활동수기

54 닌닌닌니 사랑해요

세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최향정

닌니닌니 사랑해요

세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최향정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 몸이 움츠러들다 한낮에는 청명한 가을 하늘에 하얀 솜사탕 같은 구름이 군데군데 그림처럼 펼쳐져 있어 마음을 여유롭게 한다.

아이돌보미로 일을 시작한 지 어느덧 5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세월이 정말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음을 느낀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 만난 아이는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16개월 된 ‘시하’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였다. 하루 6시간 종일제로 만나면서 다양한 추억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로 낯가림이 있었지만 매일매일 긴 시간 만남으로 아이와 관계가 좋아지게 되었다. 하루에 한번은 아파트 단지 안의 공원으로 놀러 나가 자연을 마음껏 보고 즐기는 시간을 보냈다. 크고 작은 나무들, 나뭇잎, 흐르는 물소리, 지저귀는 새소리, 하늘, 바람 등을 설명해주면 아이는 잘 듣고 따라서 말로 표현하려고 하고 밝은 미소로 얼굴은 환해졌다.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은 아이에게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놀이 공간이 된다. 자연의 깊고 넓은 세계를 아이와 함께 눈으로 보고 만지기도 하면서 체험해보는 시간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다.

어느덧 4살이 된 시하는 발레를 배우러 다니게 되었다. 집에 돌아와서는 발레리나 흉내를 내면서 손을 높이 들고 발을 모아서 쭉긋 세우고 빙글빙글 돈다. 마치 발레리나가 된 것같이 행복해한다. 그리고 발레리나 그림을 스케치북에 그려 달라고도 한다. 발레할 때 입는 발레복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 종일 입으려고도 한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한 시하는 반복해서 읽어주면 집중해서 잘 듣는다. 어느 날은 글을 모르는데도 그림을 보고 힘차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어주려 했다.



그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와~ 우리 시하가 벌써 책도 읽네.”

엄마가 집에 돌아와 칭찬해 주면 더 당당하게 큰 소리로 책을 읽는다.

30개월 동안의 돌봄은 시하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아쉬움 속에 마치게 되었다. 헤어지던 그 날은 아직도 마음에 그리움으로 잔잔히 남아 있다. 하지만 가까이 살고 있어 길에서 종종 만나게 되면 아이는 한달음에 뛰어와서 꼭 안아주며 이렇게 속삭인다.

“선생님, 사랑해요.”

“시하야 고마워. 시하 사랑해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자.”

시하를 돌보는 일이 끝난 후 바로 지금 돌보고 있는 유주와의 만남이 이어졌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눈이 작고 잘 웃고, 피부는 보양고 통통한 사랑스러운 9개월 된 아이였다. 어린 영아여서 조심스러웠지만 관련된 서적도 보고, 보수교육을 통해서 교훈도 얻고 앞서 만난 시하와의 경험을 토대로 유주를 매일 7시간씩 만났다. 그러다 보니 아이하고는 자연스레 애착 관계가 좋아졌다. 12개월까지는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날씨가 좋고 따뜻한 날에는 하루에 한 번 공원에 나가서 햇빛도 쬐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아이에게 설명해 주곤 했다. 아이는 햇빛에 눈부셔 찡그린 눈으로 바라보고 방긋 방긋 미소를 지으며 좋아한다.

어느덧 첫 번째 생일이 지나면서 걸음마도 시작하고 움직임도 빨라졌다. 10살, 8살 언니 두 명이 있어서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인지행동이나 눈치가 정말 빠른 편이다.

음식도 골고루 잘 먹고 낮잠도 깊이 자고 놀이도 신나게 잘 노는 유주의 모습을 보면 돌보는 나의 마음도 포근하고 행복해진다.

사실 긴 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 안전하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매사에 눈을 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종일 아이하고 웃고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많다.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오면 몸이 피곤하고 지치지만 잠자기 전 누워서 아이랑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 힘든 것은 사라지고 입가엔 웃음이 피고 평안하게 잠이 들곤 한다.

매일 아이하고 가는 장소가 있다. 아파트 안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인데 아이하고 놀기에 아주 좋은 공간이다. 책도 마음껏 볼 수 있고 다양한 놀이시설도 준비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실내 놀이터라 할 수 있다. 오후 4시가 되면 또래 친구들도 만나고 언니들, 개구쟁이 오빠들도 만날 수 있다. 유주는 혼자 놀기보다는 언니, 오빠들이 오면 더욱 신바람이 나서 잘 놀기 시작한다. 특히 잘 모르는 언니 앞에서도 “안녕!” 하고 인사하며 뒤를 졸졸 따라 다닌다. 착한 언니는 유주를 보고 “귀엽네!” 하고 잘 데리고 놀아주기도 한다.

평상시 유주랑 다니면서 인사하는 습관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는데 길에서 만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언니, 오빠를 보면 앞에 꼭 서서 “안녕.” 하고 고개를 숙인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어머나! 예뻐라!” 하고 웃으면서 좋아하신다. 보통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울거나 거부하는 반응이 있는데 유주는 어른들에 대한 낯가림이 없고, 오히려 어른들을 좋아하고 먼저 다가간다.

유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도 활기차게 즐겁게 잘 어울리고 노는 아이다. 한낮에는 날씨가 좋아서 놀이터에서도 많이 놀기도 하는데 아직은 무서운 것 모르고 겁이 없어서인지 그물망에서도 씩씩하게 잘 올라가고 미끄럼틀도 재미있게 타고 내려온다. 저녁이 되어도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떼쓰며 울기도 하는데, “유주야, 밖에서 충분히 놀았으니 집에 들어가면 맛있는 저녁밥이 기다리고 있단다.” 라고 말하면 떼를 쓰다가도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 더욱 사랑스러워서 “유주 백설 공주님은 너무 예뻐요” 라고 말하며 꼭 안아준다. 최근에 유주 마음을 사로잡은 동화책이 있다. 동화에 나오는 공주처럼 옷을 입으려고 빨강 원피스를 입고 빙그르 돌기도 한다. 외출할 때도 꼭 원피스를 입고 예쁜 양말과 구두를 신고 나갈 준비를 하고 현관 앞에서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그리고 유주는 “백설노노(공주)예요.” 라고 얘기한다. 도서관에서나 집에 들어와서도 공주에 관한 책을 보고 하하 웃으며 좋아한다.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오전에 출근해 현관에 들어서면 나를 보고 이렇게 소리친다.

“닌닌닌니 엄마 닌닌닌니 왔다!”

선생님이 올 시간이 되면 현관문 앞에서 기다린다고 한다.

“닌닌닌니 사랑해요!”

손으로 하트도 하고 꼭 안아주고 인사도 잘 한다. 끝나고 헤어지는 시간에 간혹 울면서 못 가게 옷자락을 잡을 때 마음이 찡하다. 이렇게 벌써 유주와의 만남이 22개월이나 흘러가고 있다.

세월이 흘러가는 만큼 아이하고의 관계도 정이 깊어지고 있다. 하루하루의 일과가 반복되는 스케줄이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소중하고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여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한다.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나길 간절히 소망한다.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수기집

내 생애 최고의 선택



우수상

• • • 아이돌보미 활동수기

60 손과 입으로 말하는 아이돌보미

안동시건강가정지원센터_이정화

64 다시 꾸는 꿈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김영현

68 오늘도 춘자의 전성시대

배재대학교가족지원센터_한춘자

손과 입으로 말하는 아이돌보미

안동시건강가정지원센터_이정화



나는 맞벌이를 하며 10년간 자녀 둘을 키우느라 어려움이 많았다. 은행에 다니다보니 마감과 정산 때는 정시에 퇴근하기 힘들었고, 저녁시간을 아이들과 보내지 못하는 것이 많이 미안했다.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집안에 아이들을 봐주실 분이 계시지 않았고, 지금처럼 나라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주지도 않았고, 사설로 운영되는 베이비시터 등도 흔치 않아서 직장생활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고행과도 같았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다행히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동네 아주머니를 알게 되었다. 그분은 아이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셨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예의바르게 자랄 수 있게 지도해 주셨고, 안전하게 잘 키워주셔서 늦게 끝나는 월말에도, 직장의 잦은 야근에도 조바심내지 않고 일할 수 있었다. 덕분에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다. 내가 일을 하는 동안 꾸준히 봐주셔서 지금도 아이들에게 그 아주머니 이야기를 하며 고마움을 표하곤 한다. 직장 다니는 동안 스스로 마음먹은 것이 하나 있었다.

“나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맞벌이 어머니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아이를 돌봐주는 일을 해야겠다.”

시간이 흘러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간식과 먹거리를 챙겨주는 일을 할 기회가 있었고, 다른 일을 찾고 있던 중 아이돌보미를 주위에서 권하기에 과거에 내가 했던 다짐이 생각나게 되었다. 누구보다 맞벌이 엄마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고, 어린이집에서 잠시 일했던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아이돌보미로 시작하는데 자신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아이돌보미 활동을 통해 일하는 엄마, 공부하는 엄마로 인해 혼자 있게 되는 아이들을 돌보며 보람을 느끼며 일해 왔다. 아이들과 종이접기, 야외활동, 나들이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나에게도 축복 같은 시간들이었다.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도 많이 넓어졌고, 아이들의 행동에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할지도 많이 알게 되었으며, 아이돌보는 일에 자신감이 생겨났다. 나름 돌봄 전문가가 되어간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가 생겨 틈을 내어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다양한 가정을 만나다 보니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아이나 부모를 만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아이들을 보는 시간 외에 수화를 배우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었다. 배우기는 하지만, 정작 사용할 수 있기는 할지... 의문이 들 즈음 센터에서 전체 아이돌보미에게 공지하는 문자가 왔다.

“간단한 수화가 가능한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센터에 연락을 했다. 그리하여 지금 돌보고 있는 소중한 아이, 민서를 만나게 되었다.

민서 부모님은 엄마 아빠가 모두 청각장애인이어서 아이가 말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엄마는 아이에게 말을 많이 해 주길 요청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엄마는 아이를 바라보지 않으면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어도 알 수가 없었다. 엄마는 너무 불안해서 아이만 쳐다보고 있었다고 한다.

처음 만났을 때 민서는 4개월이었다. 동화책도 읽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의성어도 많이 들려 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또 제한이 있는 정부지원시간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뿔뿔히 민서를 돌보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민서가 자라면서 뒤집고, 걷고, 잘 성장하고 밝게 자라주어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이면에 내 마음엔 부담이 많이 되었다. 민서가 또래보다 말이 늦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뭘 더 해주어야 하나 하루하루 고민의 연속이었다. 하나라도 더 들려주고 싶은 욕심에 3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 체력이 고갈되곤 했다. 엄마와 수화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이제 많이 익숙해졌고, 속도도 빨라져서 민서 엄마와 아이를 키우는 일에 대해 대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럼에도 나의 조급함은 줄어들지 않았다. 또한 나의 조급함을 엄마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불안해하면 민서엄마가 나보다 더 조급해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좌절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했던 것이다. 그렇게 민서가 말할 준비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지쳐갈 때쯤 민서는 조금씩 소리를 내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또래보다는 좀 늦지만, 다른 아이들과 같이 말하기 훈련을 하고 하루하루 단어가 다양해지고 발음도 정확해져 가고 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민서를 위해 내가 해 주어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하기에 마음이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민서 가족과의 만남은 커다란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다.

나는 청각장애인인 엄마와 아이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공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엄마의 생각과 마음을 민서에게 전달하고, 민서에게 엄마와 소통할 수 있도록 간단한 수화도 가르친다. 시간이 지나면 민서가 엄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 그런 민서를 상상하면 절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낀다.

나이 들어 내가 한 일 중 가장 신나고 의미 있는 것은 아이돌보미로 생면부지의 가족들을 만나서 또 다른 가족이 되어 온 것이다. 부족한 나를 귀하게 여겨주며 “우리 선생님, 우리선생님~” 하며 존중해 주었던 모든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이 글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다시 꾸는 꿈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_김영현

하루하루 나이 먹음을 느끼는 순간은, 늘어가는 흰머리의 개수나 조금씩 아파오는 다리보다도 밤에 좀처럼 잠들기가 어려울 때이다. 그 옛날에 나의 어머니가 그랬듯이 초저녁 무렵 끔찍 기절하듯 잠들었다가도 서너 시간 후면 깨어 아무리 누워 있어도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철들고서 일찍부터 일만 하며 보냈던 터라 취미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고, 아이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 제각기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갔다. 내 곁에는 갱년기와 우울증만이 징그럽게 남아 있었고, 새벽에 가만히 눈을 뜨고 누워 있으면 지나간 세월의 한스러운 기억만 떠올라 그저 텔레비전만 밤새 응시할 뿐이었다.

그 날도 11시쯤 눈을 뜨고 오늘은 다 잤구나 생각하며 리모컨을 요리조리 누르다가 'SBS 스페셜-엄마의 전쟁'을 보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젊은 엄마들의 "힘들다." "애들 키우기 어렵다." 고 하는 말들이 단순한 투정 정도로 들렸는데, 방송에 소개된 워킹맘들의 현실을 보고 나니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두 가지를 손에 쥐려는 욕심이 아니라 놓고 싶어도 놓을 수 없는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 이미 경험했으면서도 세월에 묻혀 잊고 있었던 것이다. 딸을 둔 엄마로서 내 딸의 일처럼 느껴져 그들의 친정엄마가 된 양 너무도 안타까웠고 방송 이후 며칠 동안은 인터넷으로 방청 후기나 기사 등을 찾아 읽기를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반갑게도 서울시에서는 위기에 처한 엄마들을 위해 2013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가 이미 시행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아이돌보미를 모집 중이며 연령에 상관없이 신체 건강한 활동희망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연령에 상관없이...”

그 문구가 가슴에 와 닿았다. 애들 학교 다 졸업시키고 다시 일을 하려고 수소문해보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나마 몇 군데 일하고자 연락해 봤던 곳에서는 나이가 걸린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망설였다.

“회사를 다니며 사회생활을 해 본 경험이 없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나이가 아닐까? 그것 때문에 거절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할수록 자신감이 떨어졌다. 그 때 아들이 한번 해 보라고 등을 밀어주었다.

“엄마, 옛날에 장래희망이 선생님이었다면서요. 아이들 좋아하고, 목소리 카랑카랑하고, 가나다 가르치는 거나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니까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들의 말에 용기를 내어 서류를 접수하고, 떨면서 결과를 기다렸다. 1차 합격을 하고, 혼자 여러 번 연습해 본 면접도 무사히 마치고 마침내 최종 합격자 명단에서 내 이름을 확인하던 그 때가 아직도 생생하다. 얼마나 기뻐는지! 일을 해도 된다고 정부가 보증해준 거라 여겨 자신감이 생기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차올랐다.

합격 후 양성교육을 받으려 종로까지 오가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걱정보다는 해보자는 생각이 나를 이끌었다. 양성교육 2주 동안은, 매일 아침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듣는 내 자신이 마치 학창시절의 나로 돌아간 것 같아 정말로 재미있었다. 앞줄에 앉아 열심히 수업을 듣고 필기도 해가며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들의 성장 단계와

심리, 연령별 돌봄 방법,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 등을 익힐 수 있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돌봄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실로 오랜만에 두근거려서 그동안과는 다른 의미로 잠을 설쳤다. 처음 돌보았던 아이는 17개월 남아로, 우리 애들과는 성격도 성향도 정반대여서 조금 당황했다.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라 낮잠은 고사하고 온종일 활기차게 뛰고 움직이고,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 여러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데 처음에는 그 속도를 따라 잡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특히 “안돼요.”라고 하면 곧장 울기 시작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은 금기어처럼 입에 담지 못했는데, 아이가 위험한 장난을 시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안 된다고 말하고서 우는 아이를 달래기를 여러 번 반복해야 했다. 마음의 준비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난관을 마주하니 아이들은 저마다 다르고 내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이 일을 쉽게 만들어 주지는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좀더 마음을 다 잡고 이삼일 후부터는 나의 태도를 먼저 바뀌보았다. 아이를 쫓아다니며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기보다는 흥미를 유도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고, 틈나는 대로 연습해 보았던 구연동화를 하면서 책장의 동화책들을 한권씩 읽어주었다. 아이는 여전히 관심이 없었고 그저 자동차만 굴리며 집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바빠 보였다.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고 큰 목소리로 동물홍내도 내보고 자동차 뽕뽕 소리도 내면서 매일 읽어주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일주일 쯤 지났을까, 오늘은 뭘 읽을까 책을 고르고 있었는데 아이가 책장에서 쑥 하고 책 한권을 뽑아 오는 게 아닌가! 말을 떼기 전이었는데도 들으면서 마음에 들었던 책이 있었는지 그림을 보고 골라온 것이었다. 무관심하게 혼자 노는 것 같아 보였어도 아이는 귀를 열어놓고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이후로 읽어 달라 골라오는 책이 다양해졌고, 숫자도 하나씩 읽더니 급기야 몇 달 후 말이 트이고 나서는 그 동안 내가 불러준 노래나 표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기 시작했다.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로 뿌듯하고 벅찬 순간이었다. 1년간 돌보았던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서 돌봄이 끝났지만, 선생님 덕분에 아이가 금방 말이 트였으며 감사한다는 내용의 편지는 아직도 냉장고 문에 붙어 있다. 지금은 방긋 잘 웃는 3개월 아가를 돌보고 있는데, 처음보다 더 자신감 있게, 나도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돌봄 일에 전념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요즘 나는 잠을 잘 잔다. 꿈도 제법 꾀다. 자는 동안 꿈을 꾸면 꼭 잠들지 못하는 것이란 얘기도 있지만, 눈만 감았다 뜨는 것보다 휘황찬란한 그 꿈마저 요즘은 재미있게 느껴진다.

동 틀 무렵 일어나 나갈 채비를 하면 어느새 출근시간이 되어 바쁘게 하루를 시작한다. 밤에는 집에 돌아와 쉬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 생각하며 돌봄 일지를 작성하고 아들, 딸과 통화하며 수다를 떨기도 한다. 내 오랜 친구 텔레비전은 여전히 함께이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잠들기 위한 배경음악 정도로 생각한다. 예전에 잠이 오지 않아 가만히 눈만 뜨고 있을 때 나를 괴롭히던 것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원망들이었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해 본지 꽤 오래 되었다. 요즘에 자기 전에 하는 후회가 한 가지 있다면, 진즉 아이 돌봄을 시작할 걸 하는 생각이다.

이 나이에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다.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 안 하던 운동도 하고, 건강도 챙기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마음이 바뀌니 걸으로도 표가 나는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굴도 밝아지고 예뻐졌단 말도 듣는다.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나는 국가가 보장하는 나라지킴이’ 라고 말한다. 내가 하는 일은 장차 나라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것이라는 생각에 스스로에 대한 금지와 자부심이 마구 생겨난다. 잠을 잘 때 꾸는 꿈만이 아니라 새로이 내 미래의 꿈을 그려볼 수 있게 되어서 참 놀랍고도 감사하다. 늦었다는 생각보다는 매일 좀 더 나은 꿈을 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나는 지난 1년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볼 것이다.

오늘도 촌자의 전성시대

배재대학교가족지원센터_한춘자

오늘도 어김없이 6시 30분에 알람이 울리면 그 이름도 예쁜 ‘촌자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시작된다. 일찍 출근하는 엄마를 대신하여 이용자 가정의 아이를 등원시키는 것이 나의 첫 번째 돌봄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부지런하게 아이돌보미 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30여 년 전 난 결혼과 함께 직장도 그만두고 시부모님과 두 자녀 양육하며 며느리로 엄마로 전업주부로 가정에 충실하게 살아왔다. 어느덧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모두 하늘나라에 가고, 아들 딸 결혼시키고 나니 3대가 다복하게 살던 가정에 우리부부만 남아 쓸쓸하기까지 했다. 갑자기 주어진 나만의 시간을 어찌 채워야 할지 몰라 하던 어느 날, 우연히 신문에서 ‘아이돌보미’를 모집한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결혼 전 피아노를 가르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생활도 했던 나는 아이들과 지내는 일이라면 잘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기를 내어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몇 십 년 만에 치르는 면접에 괜히 긴장이 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나는 당당히 ‘아이돌보미’ 선생님이로 선발되어 정식 양성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교육을 받기 시작하자 내가 정말 ‘아이돌보미’가 되는구나 실감하게 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이 밀려왔다. 그 때문인지 하루 종일 교육을 받아도 그저 즐겁고 강의 내용도 좋아 ‘아이돌보미’를 선택하길 아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를 듣는 중간 중간이면 나의 초보엄마 시절이 자주 생각나곤 했다. 내 자녀들을 양육하며 키울 때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가면서 잘한 일도 있고 부족했던 일도 있었음을 깨닫기도 하였다.



벚꽃이 만발한 교정에서 함께 교육받은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여고 시절로 돌아간 듯 신이 나고 기뻛다. 드디어 한 달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난 후, 나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이로 정식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막상 일을 시작하려니 남의 가정에 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게 두렵고 걱정이 되었다.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 두 달... 차츰차츰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에 익숙해졌고 일도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볼수록, 어쩔 그렇게 나에게 꼭 맞는 직업을 선택했을까 싶을 정도로 나 스스로가 대견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고 싶다.

이제야 고백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시부모님과 부유한 환경에서 부러울 게 없이 살던 내가 오십이 넘는 나이에 남의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다는 일이 창피하게도 느껴져 처음엔 친구나 지인들에게 숨기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남편 역시 싫어하는 눈치였다. 남편은 이용자 가정 형편상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날이면 일부러 피해서 나가 버리곤 했다. 그런데 1년쯤 활동을 하고나니, 나는 이 일이 더없이 즐겁고 어느 가정의 어떠한 아이를 맡게 되더라도 눈높이를 맞추어가며 잘 돌봐 줄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열정이 생겼다. 그때부터 난 내 주위의 지인들에게 당당히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는 ‘아이돌보미’로 활동 중이라고 밝히기 시작했다. ‘아이돌보미’ 일을 시작하며 일도 당연히 즐거웠지만 경제적인 여유도 덩으로 얻게 되었다. 봉사 개념에 가깝게 생각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시작한 ‘아이돌보미’란 직업이 경제적 어려움이 생긴 우리가정에 큰 디딤돌이 되었고, 나의 노후설계와 가정생활에 희망을 주며 많은 경제적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그저 아이가 좋아서,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을 돌보는 노하우가 생기고 알찬 보수교육을 진행해주시는 센터의 지원에 힘입어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놀이, 규칙, 안전까지 챙기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전문 기술이 생겼다.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 육아전문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로 날 찾는 이용자 가정이 늘어나게 되었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면 참으로 보람되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듯 나는 어엿한 ‘배재대학교 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서비스팀’ 소속 직장인이 되었다.

‘아이돌보미’라는 직업은 아이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키우는 초보엄마들에게 나의 경험담을 나누고 양육방법을 알려주는 친정엄마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직장 혹은 학업 때문에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엄마와 아빠를 대신하여 안전하게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봐줘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뒤따르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돌봄서비스 덕분에 이용자 가정들이 맘 놓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원하는 자격증을 따기로 하고 검정고시에 합격하기도 하는 것은 곁에서 지켜보면서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에 미치는 좋은 영향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이돌보미’로서의 나의 생활에 더욱더 충실하리라 다짐을 해보기도 한다. 남들이 볼 땐 하찮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예쁜 아이들과 밤낮으로 만나서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면 나는 내 나이도 잊어버린 채 동심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듯하다. 누가 나이드 나를 직장인으로 받아 줄 것이며, 어느 직장에서 이토록 사랑받으며 활동할 수 있을 것인가 싶다. 내가 도착할 시간만 기다리다 나를 보자마자 “돌보미 선생님!” 하고 내 품에 안겨주는 천사들을 만날 때면 나 역시도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아 행복하다 느낀다.

하루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업무일지를 작성하며 오늘 하루도 이렇게 바쁜 스케줄에 따라 움직였음을 깨달으면서 스스로 성취감을 느낀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한 지 10년이 되어가는 요즘, 이제는 한 해 한 해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이 무척이나 아쉬워진다. 문득 10년 전 처음 연계되었던 유난히 반짝이고 동그란 눈을 가졌던 아이가 생각난다. 한부모가족의 돌이 갓 지난 남자 아이였는데 이용자 가정 형편상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지내야 했다. 처음엔 남편도 관심을 보이지 않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을 주기 시작했다. 그것도 인연인지 2살의 돼지띠 아이는 “아빠! 아빠!” 하며 꼭 60살 차이가 나는 돼지띠 남편을 유난히 따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그 아이의 큰엄마 큰아빠가 되어 주었다. 남편뿐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나에겐 든든한 후원자이다. 낮이나 밤이나 아이돌보미로 열심히 활동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엄마 파이팅!” 하고 힘을 주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모두가 내가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진정한 팬들이며, 건강한 몸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남아주신 부모님께도 감사드린다.

오늘도 나는 툼툼이 체력 단련도 하면서 밝은 내일을 향해 자라나는 아이들을 열심히 보살피고 있는 어엿한 직장인이자 커리어우먼, ‘아이돌보미 선생님’으로 제2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 내일 해가 밝으면 또 나를 기다리는 일과 아이들이 있음에 행복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가정에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아주겠다는 금지와 책임감을 느낀다. 또한 ‘아이돌보미’ 활동을 시작하면서 늦게나마 뜻과 맘이 통하는 동료 선생님들을 만나 더 없이 기쁘고, 보수교육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며 애로사항들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 것 같아 더욱더 즐겁고 힘이 난다. 누군가 말했듯이 좋은 친구들도 가득 얻게 된 셈이다.

바라건대, 우리들의 ‘아이돌보미 활동’이 부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이들의 엄마, 할머니 역할 만큼이나 이 사회가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 밝은 세상이 되는 데에 일조할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주관하는 여성가족부와 배재대학교속 아이돌봄 서비스팀에도 감사를 드리며, 건강한 날까지 안전하고 믿을 만한 돌봄을 제공하는 행복한 ‘아이돌보미’로서 살아갈 것을 스스로 약속해 본다. 오늘도 행복한 아이돌보미, 춘자의 전성시대는 활짝 열려 있다.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수기집

내 생애 최고의 선택



장려 상

• • • 아이돌보미 활동수기

74 미래를 사는 아이돌보미, '순이'입니다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_은순이

78 오늘도 내게 와서 별처럼 반짝였다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_이상미

83 나는 그 가정의 구급대원 같았다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_박소연

미래를 사는 아이돌보미, '순이'입니다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_은순이

내 인생 60대가 되었을 때 남은 인생은 핑크빛이 아닌 진한 회색빛에 가까웠다. 미래에 내가 어떤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다. 젊을 때는 아이들 키우며 보험설계사 생활을 하는 등 나름 밝고 긍정적이었는데, 나이 들어가는 내 모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세상의 일에 무덤덤하고 무감동한 나 자신을 대하는 것이 힘들었다. 나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 때만 하더라도 어느덧 결혼 39주년을 보낸 60대 중반의 할머니가 아이들이나 엄마들에게 “선생님!” 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다. 하긴, 지금 내 나이 또래들에게 물어보아도 “진짜? 그런 일이 있어?” 라고 하니까...

아무튼 그러한 시기를 거쳐 지금까지 나는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순이’이다. 5년 전에 아들을 결혼을 했고, 남편과 딸 셋이서 경기도 하남시에 살고 있다. 그저 남들은 살만큼 사는 집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늘 뭔가 부족한 것 같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울해했다. 이유도 없이 불안하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고 표정은 잔뜩 굳고 심장은 수시로 두근거리고 초조해 병원을 찾기도 했다. 공황장애에 부정맥이 의심되어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뚜렷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다. 마음의 병이었을까. 나이 먹어감에 대한 통과의례였을까.

그러다 2년 전 어느 날 길을 가다 우연히 ‘아이돌보미 모집’이라는 전단지를 보았다. “아이돌보미가 뭐지?” 라는 궁금증은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내가 해도 되는 일인가?” 라는 의문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도 잠시,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이거야! 한번 해보지, 뭐,” 란 생각이 들어, 바로 전단지에 쓰여 있는 곳으로 전화를 걸었다.



친절한 담당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돌보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이돌보미 활동을 원한다고 해도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면접을 봐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합격을 해야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안내가 이어졌다. 전화통화로 안내를 받고 낯선 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 기회를 꼭 잡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내 마음 속에서 요동쳤다. 그리고 나는 아이돌보미 면접을 보고 당당히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모든 것이 크게 기쁠 일이 없었고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일상에서 아이돌보미로서의 지원은 나의 작은 도전이고 선택이었다. 곧이어 2주 80시간의 교육과 10시간의 이용자 가정에서의 실습활동 끝에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득했고, 활동이 연계되었다. 나에게 연계된 첫 아이는 36개월 된 남자아이였다. 엄마만 좋아할 나이 36개월. 활동시간은 하루에 세 시간.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는 순간만 빼고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 하루하루 느리게만 가던 나의 시계가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아이를 위해 오늘은 무엇을 하고 놀까, 어떤 것을 좋아할까를 생각했고, 아이와 함께 장난감과 놀기, 노래불러주기, 주변 산책하기 등을 하며 즐겁게 활동을 하였다. 아이는 나를 잘 따라주었고 보람의 나무도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아이와의 만남과 이별을 통하여 조금 더 능숙한 선생님이 되어갔다.

그 후로 나는 여러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다. 지금 돌보는 아이는 집에서 5분 거리인 초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한미, 등하원을 도와주는 유치원생 지휘(7세), 지상이(5세)가 있다. 한미는 내가 꼬불 꼬불한 퍼머를 하는 것이 싫다고 하는 아이다.

“선생님, 선생님!~” 하며 잘 따라주고 친구 같은 때도 있다. 훗날 화가가 되어 나에게 그림을 선물하겠다는 약속도 하였는데, 나는 한미가 화가가 되지 않더라도 성인이 되어서 다시 만난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눈물 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제자를 상급반으로, 혹은 위 학교로 올려 보내고 몇 년 후 그 제자가 다시 찾아왔을 때에 마음이 이와 비슷하겠다는 생각도 든다.

지휘와 지상이 역시 나에게서는 소중한 아이들이다. 아이들과의 등하원길에는 뚝방을 걸어야 하는데, 오가는 길에 지렁이도 보고 개미떼도 보며 돌다리를 건넌다. 돌다리가 위험해 다섯 살 지상이를 업고 건너면 아이는 나의 등 뒤에서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 힘들지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의 어깨와 허리를 꼭 껴안으며 걱정해 준다. 내가 업는다고보다 아이가 오히려 나를 뒤에서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든다.

“아니야, 안 힘들어. 괜찮아.”

우리는 노래를 함께 부르며 10여분 걸리는 거리를 들꽃도 따보고 하늘도 보며 걷는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젊을 때는 바빠서 몰랐고, 나이가 들어서 나이 드는 내 모습만 보면서 야속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다 보니, 아이들 덕분에 계절이 바뀌는 것에도 민감해지고 비가 오거나 눈이라도 내리면 아이들 걱정에 전날부터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축복이자 덤이다. 건강을 얻었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배웠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걱정을 한다.

“아이들 보다보면 폭삭 늙어. 몸도 안 좋으니까 그런 일 하지 마.”

사실 나의 가족들도 엄마가 고생한다고 가끔 아이돌보미 활동 시간을 줄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면서 내 생활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 보람 있고 기쁘게 선생님이로 다시 태어난 난 느낌. 언제 그랬냐는 듯 우울한 증상도 사라졌다. 게다가 한 달 활동비도 소소하게 받게 되었으니, 일석이조도 아닌 일석 삼조, 일석 사조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나는 건강이 허락된다면 계속 아이돌보미 일을 하고 싶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 이 일을 소개하고 싶다. 실제로 올해 아이돌보미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아는 지인 한 명이 내게 물어왔다.

“그거 나 소개 좀 해줘. 나도 해 볼 수 있을까?”

“그럼요. 그런데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절대 더 잘 봐주지 않아. 누가 아는 사람이라고 합격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런 대답은 내가 소속된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선생님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이러한 아이돌보미서비스에 대한 나의 애정은 올해 라디오 방송에 사연소개로 이어질 정도였으니, 앞으로도 나는 나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아이돌보미 선생님이라는 직업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



오늘도 내게 와서 별처럼 반짝였다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_이상미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면서 각 가정의 다양한 양육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보람도 커질 무렵, 센터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심야활동 의뢰를 받게 되었다. 워낙 늦은 시간이라 위험요소도 있고 내게도 돌봐야 할 중학생 아이가 있었기에 고민이 되었다. 아직은 엄마의 관심이 필요할 나이인데 내 아이를 놔두고 다른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게 옳은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우리집과 가깝기도 하고, 무엇보다 나와 같은 한부모가족이라 하니 내 아이들의 어릴 때 모습이 자연스레 스치며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야간 근무에 대해 아이들의 이해를 구했을 때 남매가 모두 우리는 다 컸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내게 힘을 실어주었다. 또 마침 육지에서 공부하는 큰 아이가 방학기간이라 집에 와 있어서 내가 없더라도 동생을 돌볼 수 있으니 일단 우리 집은 안심하고 그 아이들을 돌봐주라는 따뜻한 배려가 보태어졌다. 이런 지지 덕분에 나는 심야보육을 시작할 수 있었다.

돌보게 될 아이는 엄마와 단둘이 생활한 이후 어린이집 등원 외엔 엄마와 분리 경험이 없는 36개월의 영아였다. 아이가 너무 어리기도 하고 밤시간이어서 엄마의 부재로 인한 불안감이 아이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점 때문에 센터 선생님의 권유로 어머니께서 계획했던 날보다 3일 정도 먼저 신청을 하여 아이와 엄마 그리고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친밀감을 높이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응 기간을 갖기로 하였다.

밤길이라 헤맬 수 있어서 전날 미리 답사까지 다녀왔는데도 긴장을 한 탓에 골목을 돌고 돌아갔다.



“똑똑!” 유리문이 열리며 퐁퐁하게

생긴 4살 남자아이와 여리고 단정한 엄마가

나보다 더 긴장한 얼굴을 하고 나란히 서 있었다.

“안녕! 만나서 반가워! 요정선생님이야!”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니 아이도 엄마도 이내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담고 “안녕하세요!” 하고 나란히 인사를 한다.

곧이어 아이가 물었다.

“진짜 요정이에요?”

“그럼! 요정선생님은 내가 멋진 친구인지 벌써부터 다 알고 있어서 정말 정말 빨리 만나고 싶었어! 우리 이제 매일 매일 신나게 놀자!”

아이의 엄마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며 웃어주었다.

나는 아이들과 활동할 때 ‘요정선생님’이라는 특별한 애칭을 사용한다. 정말 요정이 맞냐, 날 수는 있냐 등 아이다운 질문이 쏟아지면, “사람들이 보면 마법이 사라지기 때문에 날개를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 다닌다.” 하고 대답해 준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빨리 친해지게 된다.

아이들은 참 순수하게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내가 정말 요정이라고 믿어준다. 나 역시 아이들이 가지는 꿈과 희망에 상처 내는 일이 없도록 요정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마치 요정과 노는 것처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된다.

적응기간 동안에는 로봇놀이, 레고놀이 등 기존에 아이가 가지고 놀던 친숙한 장난감을 활용한다. 엄마가 없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그러다가 차차 클레이나 색종이 등 직접 준비해간 재료들을 활용하여 호기심이 촉진될 수 있도록 놀이를 확장시킨다. 돌보미 선생님과 시간이 흥미로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어머니에게선 엄마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한 아이의 성향에 대해 전달받기도 하였다. 어머니는 소송까지 하면서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될 수밖에 없었던 전후 사정과 늦은 시간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전부 들려주었다. 속마음을 털어놓는 엄마에게 절박함이 느껴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만큼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날 믿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어머님께 말씀드렸다.

“저도 둘째가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왔어요. 힘든 일도 많지만 웃을 일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아이가 저와 함께 있는 동안은 누구보다도 행복하도록 성심성의껏 돌볼게요. 어머님은 아무 염려 마시고 아프지 말고 용기 내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아이는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마를 찾았다. 선생님이 밉다는 말을 수시로 하고, 나를 때리거나 장난감을 던지는 일도 적지 않았다. 귀여운 표정에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잠을 재울 때도 자장가를 부르며 토닥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도 자신의 몸이나 물건에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게 하여 멀리 떨어져 팔만 길게 뻗어 가슴만 토닥이며 재워주곤 했다. 엄마가 보고싶다고 울면서도 강하게 거부하니 안아서 달래줄 수도 없어 안타깝기만 했다.

나의 등장과 함께 엄마와 떨어져야 하니 선생님을 원망하는 마음에 내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엄마 그리고 두 모자의 가장 큰 버팀목인 이모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했다.

“아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할까 봐 너무 걱정돼요.”

아이 엄마는 아들을 염려하며 말을 했다.

어린이집에서는 친구들을 때리거나 장난감을 뺏는 등 친구들의 피해가 누적되어 이미 문제가 큰 상황이었고, 키즈카페에서도 혼자 놀 수밖에 없다고 한다. 특히 한 달에 두 번 아빠를 만날 때는 가장 심각해서 아빠가 도저히 감당을 못해 어쩔 수 없이 데려올 때도 많다고 했다.

엄마와 이모 외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얼마나 상처가 크고 불안하면 그런 행동을 보일까 너무 안쓰럽고 걱정되었다.

아이가 세상과 사랑을 나눌 수 있길 바랐고, 진심으로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다.

장난감이나 동화책, 간단한 간식거리부터 비누와 치약까지 공식적으로는 내 것이지만 아이와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준비하여 갔다. 아이에게 먼저 양보해 주면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고, “선생님이 도와줘도 돼? 선생님도 가지고 놀아도 돼?” 하면서 아이의 영역으로 한 발짝씩 들어갔다. 이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아이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키워가기도 하였다.

나를 때릴 때는 나의 감정을 잘 전달하려고 애썼다.

“요정선생님은 너를 엄청 많이 사랑해! 너랑 많이 친해지고 싶는데 네가 선생님한테 장난감을 던지니까 많이 아프고 속상해! 원래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더 아프거든! 아마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네가 미운 말하고 미운 행동을 하는 걸 아시면 엄청 속상하지 않을까?”

진심을 다해 말해주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변신 로봇놀이도 꾸준히 실력을 쌓아 이젠 웬만한 로봇은 척척 변신과 합체가 가능해 아이로부터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아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고 먼저 말을 걸어와 주기 시작했다. “물주세요.” 말하거나 동화책을 볼 땐 내게 살포시 몸을 의지하기도 하더니 차차 양치와 세수를 부탁해 왔다. 침대 위에서 폐굴폐굴 몸을 굴리며 놀이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다. 심지어 엄마에게 하지 않은 이야기도 내게 해주고 엄마에게 듣지 못한 소식도 아이에게서 들곤 했다. 아직도 잠자면서 뒤척이다 깨서 엄마가 아닌 나를 보고 놀라긴 하지만, 이내 눈을 감고 내 품 안에서 편하게 잠을 청한다. 밝아진 아이 얼굴에 엄마까지 웃는 일이 많아져 간다. 모든 게 감사하고 다행이다.

“어린이집에서 친구가 때리고 도망갔어요.”

“속상했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나도 때리고 싶었는데 그냥 사이 좋게 놀았어요.”

“선생님도 참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너는 정말 멋진 친구구나!”

“나만?”

“또 누구?”

“친구도 같이! ‘같이’ 가 더 좋아요.”

오늘도 아이는 내게 와서 별처럼 반짝였다.

나는 아이들이 정말 좋다.

● ● ● 아이돌보미 활동수기

아이들과 놀이하고 활동하는 것이 가장 잘 하는 일이고 가장 큰 즐거움이다. 아이들이 나와 함께 하며 행복을 느낄 때 나도 행복하다.

세상의 모든 아이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이유나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직접 육아를 하지 못하는 어머니들의 애타는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므로 그분들이 안심하고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랑과 진심으로 아이를 보살피는 나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이다.



장려상

나는 그 가정의 구급대원 같았다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_박소연

누가 나에게 어떤 계절을 좋아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지체 없이 “겨울!”이라고 답할 것이다. 나는 이 일을 하면서 겨울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이돌보미로 일을 시작한 지 두세 달쯤 되었을 때 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쌍둥이 아이가 있는 집인데, 한 아이는 할머니가 보실 때도 있고 어머니가 보실 때도 있는데요, 선생님은 한 아이만 봐주시면 되는데, 괜찮으세요?”

시간제로 일하던 나는 센터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거부를 한 적이 없었다.

“네, 괜찮습니다.”

흔쾌히 승낙을 한 후 배정받은 가정으로 향했다.

쌍둥이를 돌보던 할머니는 힘들어하는 것이 역력했다.

“쌍둥이라 보통 힘든 게 아입니다. 우리 딸이랑 같이 보는데도 너무 힘이 들고, 저거 엄마가 치과도 가야 되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한 개도 못하고 있다 아입니다.”

솔직히 나는 좀 의아했다. 15개월 된 아이들이 아프다거나 특별한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인지 말이다. 그런데, 잠시 후 눈앞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 벌어졌다.

외출하기 전 아동의 기저귀를 갈고 가겠다면, 아이 엄마가 한 아이의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선 자세로 들고 있었고, 아래에서 할머니가 아랫도리 기저귀를 갈고 바지를 입히려 했었는데, 아동은 발버둥을 치며 고래고래 울어대고 있었다.



“애 들이 와 이럴까요? 기저귀 갈 때마다 이 난리를 치요.”

할머니는 거의 울상이 되어 있었다. 기저귀를 갈아줄 때마다 큰 소리로 울고 기저귀를 차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늠혀서 채우면 되는데, 힘드시게 왜요?”

“누피서는 문제우요. 안찰라고 뒤집어붙고 도망당기사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할머니와 대화하면서 몇 가지를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 할머니는 옛날에 밖에 일하러 다니느라 세 자녀들을 낳기만 하셨고, 어르신들이 다 키워주셨기에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셨지만, 누구보다도 첫 외손녀들인 이 쌍둥이들을 밤잠 못 자가며 정성으로 키우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갓 짙어서 윤기 잘잘 흐르는 햅쌀과 신선한 재료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고 계신 따뜻한 분이였다.

“우리 아기, 쉬~ 했네요. 기저귀 빨리 갈아줄게요. 아이 좋아라.”

나는 아이를 눕히고 기저귀를 갈면서 활짝 웃는 얼굴로 바라보며,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손에 쥐어주고는 마치 구급대원이라도 된 듯 빠르게 기저귀를 갈고 박수를 쳤다.

“너무 잘했어요, 짹짹. 기저귀 갈았더니 아유 개운해.”

그야말로 찰나에 기저귀를 갈아주고 하던 놀이를 계속 하도록 했더니 아이는 울지도 않았다. 아니 울 시간이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환하게 웃는 내 얼굴과 인형을 번갈아 보느라 누운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 수 있었다.

기저귀를 갈 때마다 어른 두 명이 붙어서 발버둥 치며 물어대는 쌍둥이들의 기저귀 갈이는 하루에 여러 차례! 그야말로 전쟁터를 연상케 했으리라.

한 아이를 봐주러 왔지만, 옆에 같이 있는 쌍둥이 언니의 기저귀 또한 그 가정에서 힘들어 하는 일이었기에 나는 쌍둥이 언니도 낯선 상태에서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빠르게 기저귀를 갈아 주었다.

“참 희한하요, 허허.”

웃으시는 할머니께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당시의 내 경험을 말씀드리며 편하게 기저귀를 갈아 주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로 활동했던 내게 쌍둥이 할머니와 어머니는 마치 만능 해결사라도 만난 듯 두 분이서 번갈아가며 매일매일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하였다. 두 분의 고민은 쌍둥이들이 말을 못하고 하루 종일 거의 칭얼대기만 하고, 한 아이만 ‘엄마’ 비슷한 소리를 하긴 하는데, 엄마를 알고 하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다른 말은 아예 못해서 언어치료 하는 곳에 데려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하였다. 나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동원해서 노력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 말해주고, 아이들은 개인차가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알려주었다.

18~24개월 사이가 언어 폭발기인데, 15개월인 쌍둥이들이 많이 듣고 반응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어른들이 도와야 되고,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쉬운 것이라도 아이들과 상호작용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들의 작은 반응에도 민감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 등을 알려주었다.

나는 우선, 책꽂이에 꽂혀있는 과일, 채소 동화책들을 넘기며 똑같은 실제 사과와 바나나를 가져다 놓고 만져보고 조금씩 맛보도록 하며 맛을 알려주고, 동물들의 이름과 외태어 외성어를 실감나게 표현해 주었고,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소리를 내면, 박수를 쳐주면서 활짝 웃어주고 잘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남남남 맛있다, 우리 애기도 자~ 남남남, 자~ 언니도 남남남, 할머니도 남남남.”

손으로 집어서 입에 넣어주는 시늉을 하며 찹찹거렸고, 그런 표현들을 약 일주일 가량 반복해 주었더니, 쌍둥이들은 딸기 그림 위에 집게손가락을 올렸다가 “암~” 하며 입으로 넣는 시늉을 하였다.

● ● ● 아이돌보미 활동수기

며칠 후 쌍둥이 언니가 먼저 “바나나”라는 말을 잘 하였고, 동생도 딸기 그림을 보며 “파이” 라고 하고 바나나를 “바나아”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호랑이 그림을 보고는 “엉~” 하며 눈을 껌뻑거리며 호랑이 흉내를 내고, 강아지 그림을 보고 “머엉” 하는 의성어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또, 작은 공 3개를 준비해 가서 다리를 벌리고 마주 보고 앉아서 공을 굴리는 놀이와 거실 바닥에 공을 굴려서 그것을 잡아오면 “잘 했어요. 공, 고마워요.” 하면서 활짝 웃어주면 입을 벌리고 소리 없이 웃으며 아이는 공 잡기 놀이를 즐겼다,

매일 만나면 인사하고 난 후 ‘깡깡총 체조’, ‘작은 동물원’등의 동요를 들려주며 내가 일어서서 직접 율동을 해 보였는데, 팔을 조금만 움직이고 다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반응을 보였다.

“와아, 잘한다아~ ♪ 이게 손이에요, 손을 높이 손을 높이 쪽쪽쪽... 이게 발이에요. 발을 콩콩 발을 콩콩.....♪이쪽 저쪽 찰룩찰룩~♪”

리듬에 맞춰 흥을 돋워주며 몸을 더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런데, 율동을 하다가 몇 발 뒤에서 지켜보는 할머니를 보게 되면, 할머니 곁으로 달려가 할머니 품에 안겨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할머니께 할머니도 쌍둥이 자매가 율동을 따라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께서 처음에는 수줍은 듯하시더니 손녀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분이라 율동하는 나의 동작을 열심히 따라 하였고 며칠 되지 않아 율동을 아주 잘 하였다. 어떤 날은 어머니도 함께 계셨는데, 그때는 할머니, 어머니, 쌍둥이 아동이 나의 율동을 따라하며 총 5명이 춤을 추는 날도 제법 있었다.

점차 아이들의 칭얼대는 소리는 거의 없어졌고, 나는 아동의 가족들과 율동을 하고, 기저귀를 갈고, 실감나게 동화를 읽어주고, 공놀이를 하며 빠르게 움직이며 놀아주다 보니, 땀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럴 때는 잠깐씩 아이들이 앉아서 집중해서 노는 틈을 타서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 열린 문을 닫고는 유리문으로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시원한 겨울 공기를 들이켰는데, 그야말로 그 잠깐의 시원함은 말로 표현이 되지 않았다. 목마를 때 물맛을 아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고나 할까. 겨울 공기가 그렇게 상쾌하고 고마울 수가 없었다.

하루 4시간의 시간제로 두어 달 활동했지만, 그 기간 동안 내가 알려준 노하우는 유아교육과 4년간의 알차디 알찬 공부 비법과 맛먹을 것이다. 아이 어머니와 할머니는 쌍둥이들을 수월하게 돌보게 되었고, 단어들을 말하며 잘 놀고 변해가는 쌍둥이들의 모습에 흐뭇해하며 아이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애쓰셨다.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던 쌍둥이들은 한 곳에 앉아서 밥을 먹게 되었고, 고개 숙이며 인사도 잘 하게 되었고, 서툰 율동이지만 몸과 팔을 흔들고 리듬을 타며 점점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아이들은 경쟁률이 센 직장 어린이집에 운 좋게 당첨되어 원하던 어린이집에도 가게 되었다.

그동안 나의 목 아픔과 땀방울은 쌍둥이 아이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께 알찬 자양분이 되고 가정의 좋은 윤활유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나는 또 다른 가정의 구급대원이 되기 위해 튼튼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내 생애 최고의 선택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수기집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발행인 김혜영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조달청 5층
전화 02_3479_7600
팩스 02_3479_7699
홈페이지 www.kihf.or.kr
기획·편집 센터지원본부 돌봄지원부
그림 신윤희

-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이 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의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